

내 생애 첫 도서관 독서 도움 자료

책과 함께 누리는

내 생애 첫 도서관

부모·양육자편





내 생애 첫 도서관 독서 도움 자료

책과 함께 누리는

내 생애 첫 도서관

부모·양육자편





CONTENTS

- 004 | 내 생애 첫 도서관 연계프로그램 안내
- 005 | 내 생애 첫 책놀이 동영상 이용방법
- 007 | 아이를 위한 책 읽어주기 안내
- 009 | 0단계(임산부 및 양육자) 프로그램 안내
- 영유아발달특징
 - 표준보육 과정, 누리과정에 기초한 영유아 돌보기
 - 독서프로그램 예시
- 014 | 1단계(0~15개월 영아) 프로그램 안내
- 영유아발달특징
 - 표준보육 과정, 누리과정에 기초한 영유아 돌보기
 - 독서프로그램 예시
- 032 | 2단계(16~23개월 영아) 프로그램 안내
- 영유아발달특징
 - 표준보육 과정, 누리과정에 기초한 영유아 돌보기
 - 독서프로그램 예시
- 050 | 3단계(24~48개월 유아) 프로그램 안내
- 영유아발달특징
 - 표준보육 과정, 누리과정에 기초한 영유아 돌보기
 - 독서프로그램 예시
- 069 | 경기도 독서포탈 북매직 안내

내 생애 첫 도서관 연계프로그램 안내



『내 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 연계프로그램이란 무엇일까요?

『내 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 연계프로그램은 수많은 책과 다양한 독서문화체험을 누릴 수 있는 공공도서관에서 태아와 영유아가 인생의 첫출발을 책과 함께 시작하도록 돕는 경기도만의 도서관 스타트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전문가들은 취학 전 아이들의 심신발달에 미치는 환경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부모나 양육자와 함께 공공도서관을 방문한 아이들은 책 읽기에 몰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책에 관심을 느끼고 안전한 장소에서 공들여 선정한 좋은 책들을 보고 놀면서 자연스럽게 책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실제로 책이 많은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는 가정의 경제 수준에 관계없이 상급 학교 진학률이 높고, 어린 시절부터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책 읽기를 즐기는 독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두 배나 더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0세에서 만 2세까지의 영아기는 모든 발달이 가장 예민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일생 중 신체, 언어, 지능, 정서 등이 가장 빠르고 왕성하게 발달합니다. 특히 생후 첫 1년간은 신체발달과 뇌의 급속한 성장 발달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생후 몇 달 동안 누워만 있던 영아가 스스로 뒤집고 기어 다니고, 걷는 등 급격한 신체발달을 이루어가고 18개월이 넘어서면 다양한 몸짓과 두 단어 정도의 문장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언어능력과 인지능력도 발달됩니다.

만 2세 이후의 유아는 영아기와 유아기의 특징이 모두 나타나며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므로 안전하게 주변을 탐색하며 스스로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유아들에게 책은 감각을 자극하며 인지, 신체운동, 의사소통, 정서발달을 돕는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아이는 양육자가 읽어주는 그림책의 소리를 듣고, 그림으로 다양한 사물을 탐색하고 책으로 함께 놀면서 정서적 유대감이 깊어지고 자연스럽게 사물을 경험하고 배우며 건강한 성장발달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내 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 연계프로그램은 국가 수준의 영아교육과정인 “표준보육과정”과 교육부의 유아 누리과정에서 제시하는 영유아 발달이론 및 교육내용을 기준 삼고, <내 생애 첫 책 가이드북(2015)>을 참고하여 영유아를 위한 좋은 책 선정과 균형 잡힌 심신발달을 돕는 통합적인 책놀이 활동을 구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에게 인생의 첫 출발을 도서관과 책이 함께 시작하는 행운을 선물하세요!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선물이 되어 아이의 미래를 변화 시켜 줄 것입니다.

내 생애 첫 책놀이 동영상 이용방법

내 생애 첫 도서관 연계프로그램은 양육자와 영유아가 언제 어디서든 쉽게 책놀이를 해볼 수 있도록 각 단계별 프로그램을 동영상으로 제공합니다. 연계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제작된 <내 생애 첫 책놀이> 동영상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유튜브 채널, 북매직 홈페이지, 경기도 지식 GSEEK 사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보기

1) 경기도사이버도서관 Youtube 유튜브 채널

Youtube접속 > 경기도사이버도서관 검색

- ▶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채널 클릭
- ▶ 책놀이 동영상 보기



2) 북매직 홈페이지

경기도도서관북매직 홈페이지(www.bookmagic.kr)

- ▶ 책과 놀이해요
- ▶ 내 생애 첫 책놀이 동영상
- ▶ 책놀이 동영상 보기



3) 경기도 지식 GSEEK

경기도 지식 GSEEK 홈페이지(www.gseek.kr)

- ▶ <내 생애 첫 책놀이> 검색
- ▶ 책놀이 동영상 보기



내 생애 첫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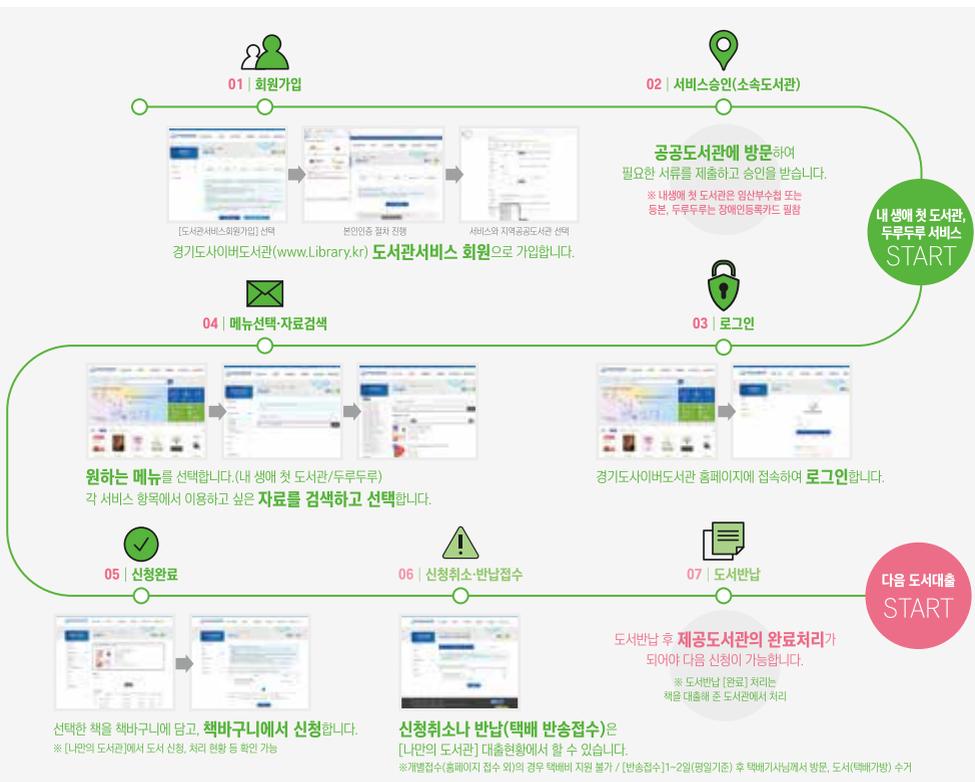
<경기도 공공도서관 종합목록>을 기반으로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임신부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이용자 거주하는 관내 도서관 소장도서를 집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택배를 통해 대출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대상 : 임신부 및 12개월 이전 아이를 둔 부모 중 1인
- 신청회수 : 월 2회 (택배이용기준)
- 대출권수 : 회당 최대 5권
- 대출기간 : 14일

두루두루

<경기도 공공도서관 종합목록>을 기반으로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이용자가 거주하는 관내 도서관 소장도서를 집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택배를 통해 대출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대상 : 경기도 공공도서관대출회원 중 등록 장애인 회원
- 신청회수 : 월 5회 (택배이용기준)
- 대출권수 : 회당 최대 5권
- 대출기간 : 14일



내 생애 첫 도서관, 두루두루 서비스 START

다음 도서대출 START



내 생애 첫 도서관, 두루두루 서비스 신청회수 기준 안내
※ 두루두루 서비스는 월 택배 대출 횟수 5회임

[사례 1]
A도서관 3권 신청 + B도서관 3권 신청
• 신청도서를 합산하여 한 번에 최대 5권까지 신청 가능
• A도서관에서 택배1회, B도서관 택배 1회를 이용할 시 월서비스 이용종료

[사례 2]
A도서관 5권신청 => 이용 후 반납
=> B도서관 5권신청
• 월 최대 10권까지 신청 가능

[사례 3]
A도서관 1권 신청 + B도서관 1권 신청
• 총 2권의 도서가 신청되었지만, 택배회수 초과로 더 이상 신청 불가
• A도서관에서 택배(1회), B도서관에서 택배(1회) 이용할 시 월 서비스 이용종료

책과 함께 누리는 내 생애 첫 도서관

부모
양육자편

아이를 위한 책 읽어주기 안내

책과 함께 누리는 내 생애 첫 도서관

부모
양육자편

아이를 위한 책 읽어주기 안내

0단계(임산부 및 양육자) 프로그램 안내

임산부 및 양육자를 위한 영유아 발달 특징 안내

임신 기간 중의 태아 발달

태아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극적인 변화와 놀라운 성장을 경험하는 기간입니다. 부모와 태아는 신체적인 불편감과 불안감을 이기며 소중한 생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상상 이상의 기쁨과 인간적 성숙을 가져오는 멋진 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임산부는 몸과 마음이 불안해지고 감정의 변화가 심해지면서 우울한 마음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태교는 예비 부모에게 부모가 될 마음과 자세를 준비하도록 돕는 유용한 활동입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태교법과 현대의 태교법이 조금씩 바뀌고는 있지만 변치 않는 공통점은 임산부와 태아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임산부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태반이 수축돼 태아에게 산소가 부족해지기 쉬운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저체중아나 학습지진아가 될 위험이 높아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신 기간 동안 클래식 음악이나 명상 음악을 들으며 평온한 정서 상태를 유지하고 태아의 두뇌 계발과 정서안정을 위해 아빠와 엄마의 목소리로 자주 이야기를 걸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3주 이후부터 태아는 소리와 진동을 느끼고, 소리를 전달하는 기관인 내이가 완성되는 12주부터는 뇌의 기초가 만들어져서 엄마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태아도 영향을 받게 되므로 본격적인 태교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고 들을 수 있게 되는 5~6개월부터는 90dB 이상의 트럭 소리크기의 소음에 접촉될 경우 태아가 스트레스를 받아 체중과 양수가 주는 등의 문제가 생기고 엄마 역시 임신중독증이나 유산의 위험이 커지는 등 엄마와 태아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5개월 이후의 태아는 목소리를 기억하는데 남성의 저음은 여성의 음성보다 자궁벽을 잘 통과해 태아에게 전달되므로 자주 엄마 배에 얼굴을 대고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수목원, 공원 등을 산책하면서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를 접하거나 책을 읽어주거나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임신 중에 독서와 글쓰기를 하는 것은 출산 후 자녀의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좋은 책을 골라서 조금씩 꾸준히 읽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익한 내용이나 기억하고 싶은 책 속 문장을 반복해서 쓰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엄마와 태아의 정서안정과 뇌의 활성화를 도와줍니다.

0단계(임산부 및 양육자) 프로그램 안내

0세에서 만 2세 영아기 발달

0세에서 만 2세까지의 영아기는 모든 발달이 가장 예민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일생 중 신체, 언어, 지능, 정서 등이 가장 빠르고 왕성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특히 생후 첫 1년간은 신체발달과 뇌의 급속한 성장발달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생후 몇 달 동안 누워만 있던 영아가 스스로 뒤집고 기어 다니고, 걷는 등 급격한 신체발달을 이루어가고 4개월경 시작된 울아가 18개월이 넘어서면 다양한 몸짓과 두 단어 정도의 문장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언어능력과 인지능력이 발달됩니다.

또한 보호자에게 울고 웃고, 화내고 기뻐하는 등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사회·정서적인 발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 시기에 그림책의 활용은 영유아의 인지, 신체운동, 의사소통, 정서발달을 돕는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영아는 보호자가 읽어주는 그림책의 소리를 듣고, 그림으로 다양한 사물을 탐색하고 책으로 함께 놀면서 영아와 보호자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깊어지고 인지, 언어, 정서발달을 효과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16개월~23개월 영아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언어발달이 촉진되면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의 영아는 처음엔 사물의 이름을 말하다가 두 단어를 연결하여 문장을 말하게 되고 차츰 자신의 감정표현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뇌 발달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언어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과 친지들은 부드럽고 친절한 자극을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달해 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제자리만 지키고 있던 영아가 일어서서 걷기 시작한다는 것은 영아에게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신기하고 경탄할만한 일입니다. 처음엔 집안에서 안전하게 걷다가 균형 잡힌 걸음걸이가 익숙해지면 점차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알맞은 그림책을 자주 읽어주는 것은 신체, 인지, 정서, 사회적 발달의 촉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만 2세 이후 영유아기 발달

24개월 이후의 영유아는 발달 특성상 영아기와 유아기의 특징이 모두 나타나며 빠르고 더딘 발달상의 개인차와 성격적인 독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영유아의 일반적 발달 특성과 함께 아이의 개별적인 개성을 존중하며 양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아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면서 자율성이 증가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자 고집을 부리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아이의 자율적인 면을 격려하면서 안전하게 주변을 탐색하며 스스로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영유아는 일반적인 상징과 의미를 습득하고 자신만의 상상력을 키우면서 인지능력이 발달하고



질문, 대화, 노래, 말놀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언어를 배우면서 언어 사용 능력도 정교해집니다. 사회, 정서발달 면에서는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즐거움, 분노, 슬픔 등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한편 또래와의 협동, 차례 지키기 등의 사회적 규칙과 관련된 행동을 발달시키고 함께 어울리면서 사회적인 발달도 이루어집니다.

표준보육 과정, 누리과정에 기초한 영유아 돌보기

5개월 이후의 태아는 목소리를 기억하는데 남성의 저음은 여성의 음성보다 자궁벽을 잘 통과해 태아에게 잘 전달되므로 자주 엄마 배에 얼굴을 대고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더불어 수목원, 공원 등을 산책하면서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와 음악은 물론 책을 읽어주거나 노래를 불러 주는 것도 좋습니다.

임신 중에 독서와 글쓰기를 하는 것은 출산 후 자녀의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좋은 책을 골라서 조금씩 꾸준히 읽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익한 내용이나 기억하고 싶은 책 속 문장을 반복해서 쓰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엄마와 태아의 정서안정과 뇌의 활성화를 도와줍니다.

생후 10개월 정도가 되면 영아는 책을 하나의 장난감으로 생각하여 입에 넣고 빠는 등 가지고 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영아의 곁에는 항상 그림책을 두고 친근감과 호기심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책을 고를 때는 색상이 선명하고 그림이나 글이 단순하면서도 아름답게 묘사된 것을 선택하며 교통기관, 동물이나 사람, 장난감 등 영아에게 친숙한 것들이 영아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젓을 먹일 때, 기저귀를 갈아줄 때 등 수시로 말을 걸어주고, 그림책을 읽어줄 때는 동요처럼 가락을 붙여 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생후 18개월 정도가 되면 영아는 색깔을 확실하게 구분하며 책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친근한 장난감에게 하는 애착 행동을 나타내며 능동적으로 가지고 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아이의 곁에 항상 그림책을 두고 친근하게 느끼며 자주 접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책을 고를 때는 색상이 선명하고 그림이 단순하면서도 아름답게 묘사된 영유아용 도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교통기관, 동물이나 사람, 장난감 등 아이에게 친숙한 것들이 영유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책 이야기를 들려주며 도서관과 서점 나들이로 다양한 책과 만나는 기회를 주고 그림책을 보여줄 때는 동요처럼 가락을 붙여 들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영아와 함께 합니다.

둘. 감각 및 기본 신체운동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영아가 자신의 신체를 탐색하며 대소 근육을 조절해 보고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놀이를 규칙적으로 함께 합니다.

0단계(임산부 및 양육자) 프로그램 안내

- 셋. 말소리를 구분하고 의사소통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영아에게 다양한 말소리를 들려주고 연령에 맞는 양질의 그림책을 자주 읽어줍니다.
- 넷. 친숙한 사람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영아와 눈을 맞추며 사랑을 표현해주고 영아 자신의 감정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 다섯.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소리, 움직임, 색, 모양에 호기심을 느끼고 반응하는 놀이 활동을 자주 함께합니다.
- 여섯. 보고, 듣고, 만지면서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영아가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해 경험하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해줍니다.

생후 24개월 이후의 영유아는 신체 근육의 조절력과 함께 행동반경이 넓어지면서 책을 장난감 삼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잡아 뜯기도 하므로 표지는 튼튼하고, 모서리가 날카롭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영유아를 위한 그림책은 친근감을 줄 수 있는 동물이 나오는 우화나 반복 구절이 있는 이야기와 '이 닭기, 옷 입기' 등 유아의 생활과 밀착된 소재로 구성된 책이 좋습니다. 이러한 그림책은 영유아가 자신과 타인을 인식하며 바람직한 성장을 이루어가도록 자연스럽게 이끌어 줍니다. 또한 어휘력과 인지발달이 가속되는 시기이므로 낱말, 색깔, 크기, 수 등 개념을 익힐 수 있는 그림책도 읽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책 읽기를 학습 도구가 아닌 보호자와 함께 하는 즐거운 놀이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 하나. 기본 운동 능력과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아이와 함께 실천합니다.
- 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바른 언어사용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아이와 자주 대화하며 규칙적으로 연령에 맞는 양질의 그림책을 읽어줍니다.
- 셋.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아이와 눈을 맞추며 사랑을 표현해주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또래와 어울릴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 넷.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 경험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리, 움직임, 색, 모양에 호기심을 느끼며 체험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이끌어줍니다.
- 다섯.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 세계를 탐구하며, 일상생활에서 수학적·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줍니다.





임산부 및 양육자를 위한 독서 프로그램 예시 안내



함께 읽을 책

- 『엄마, 느껴져요? 나예요』 Yoh Shomei 글, 그림, 허재원 옮김, 유형진 고침, 다락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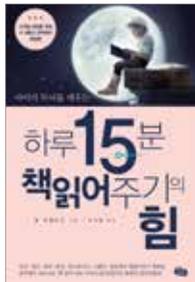
책 내용



아기를 기다리던 사람도 막상 임신을 하게 되면 기쁨과 신기함과 함께 한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과 육아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울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 책에서는 태아가 엄마에게 말을 걸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임신하면서 겪게 되는 신체적, 정서적 변화로 인해 불안하고 막막한 초보 엄마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태고 그림책입니다. 책을 읽으며 부모자식 간의 귀한 인연에 감사하며 사랑을 확인하고 생명 탄생의 순간을 기대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 짐 트렐리즈 글, 눈사람 옮김, 북라인

책 내용



신생아 때부터 노년까지 책을 즐겨 읽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방법을 실제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전해 주는 책입니다. 평생 동안 책 읽어주기 운동을 펼쳐온 저자가 들려주는 방법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열네 살이 될 때까지 하루에 15분씩 아이에게 책을 읽어 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아이에게 왜 책을 읽어주어야 하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읽어주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읽어주어야 하는지, 아이에게 책을 읽어 줄 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혼자 읽기는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1단계(0~15개월 영아) 프로그램 안내

부모를 위한 영유아 발달 특징 안내

0세에서 만 2세까지의 영아기는 모든 발달이 가장 예민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일생 중 신체, 언어, 지능, 정서 등이 가장 빠르고 왕성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특히 생후 첫 1년간은 신체발달과 뇌의 급속한 성장발달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생후 몇 달 동안 누워만 있던 영아가 스스로 뒤집고 기어 다니고, 걷는 등 급격한 신체발달을 이루어가고 4개월경 시작된 웅얼이가 18개월이 넘어서면 다양한 몸짓과 두 단어 정도의 문장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언어능력과 인지능력도 발달됩니다. 또한 보호자에게 울고 웃고, 화내고 기뻐하는 등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사회·정서적인 발달도 함께 이루어갑니다. 이 시기에 그림책의 활용은 영유아의 인지, 신체운동, 의사소통, 정서발달을 돕는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영아는 보호자가 읽어주는 그림책의 소리를 듣고, 그림으로 다양한 사물을 탐색하고 책으로 함께 놀면서 영아와 보호자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깊어지고 인지, 언어, 정서발달을 효과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표준보육 과정, 누리과정에 기초한 영유아 돌보기

생후 10개월 정도가 되면 영아는 책을 하나의 장난감으로 생각하여 입에 넣고 빠는 등 가지고 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영아의 곁에는 항상 그림책을 두고 친근감과 호기심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책을 고를 때는 색상이 선명하고 그림이나 글이 단순하면서도 아름답게 묘사된 것을 선택하며 교통기관, 동물이나 사람, 장난감 등 영아에게 친숙한 것들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젓을 먹일 때, 기저귀를 갈아줄 때 등 수시로 말을 걸어주고, 그림책을 읽어줄 때는 동요처럼 가락을 붙여 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 하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영아와 함께합니다.
- 둘. 감각 및 기본 신체운동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영아가 자신의 신체를 탐색하며 대소 근육을 조절해 보고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놀이를 규칙적으로 함께 합니다.
- 셋. 말소리를 구분하고 의사소통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영아에게 다양한 말소리를 들려주고 연령에 맞는 양질의 그림책을 자주 읽어줍니다.
- 넷. 친숙한 사람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영아와 눈을 맞추며 사랑을 표현해주고 영아 자신의 감정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 다섯.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소리, 움직임, 색, 모양에 호기심을 느끼고 반응하는 놀이 활동을 자주 함께합니다.
- 여섯. 보고, 듣고, 만지면서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영아가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해 경험하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해줍니다.



부모를 위한 통합적 책놀이 안내

책은 영유아의 생활과 함께합니다. 일상에서 책으로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놀이 경험은 영유아의 발달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책으로 전개하는 다양한 놀이는 영유아의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능력 등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표준보육 과정, 누리과정에 기초한 영유아랑 책 읽기

- 하나. 책을 비롯한 다양한 인쇄물에 관심을 갖도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 둘.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책을 읽어줍니다.
- 셋. 양육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책을 보는 것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친숙한 책을 반복하여 읽어줍니다.
- 넷. 영유아가 다양한 형태에 친숙함을 느끼며 구분할 수 있도록 반복하여 읽어줍니다.
- 다섯. 책을 읽어줄 때 바르게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며, 매일 규칙적으로 책을 읽어줍니다.
- 여섯. 책 읽기에 관심을 보이는 영유아의 행동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 일곱. 좋아하는 책을 반복해서 읽어주어 책 읽기의 즐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 여덟. 책을 읽은 후 관련된 놀이를 하며, 영유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 아홉. 책에 나오는 단어, 문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집중 행동(소리의 고저장단 등 변화)을 하며 읽어줍니다.
- 열. 동요, 동시, 동화 등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어줍니다.
- 열하나. 자신의 경험과 상상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즐겁게 나누도록 합니다.

1단계(0~15개월 영아) 프로그램 안내

통합적 책놀이 예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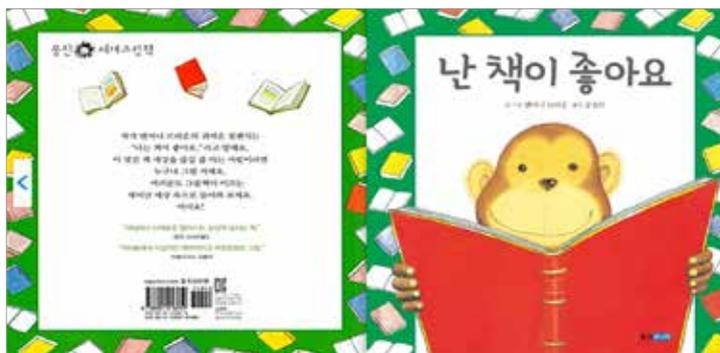
1차시

난 책이 좋아요

그림책 제목	난 책이 좋아요
지은이	앤서니 브라운 글·그림
옮긴이	공경희 옮김
출판사	웅진주니어
출판연도	2017
책의 크기	180*200mm



책 표지





책의 일부 장면



나는 책이 좋아요.



웃기는 책도 좋고



무서운 책도 좋아요.



전래 동화 책이나



공룡에 대한 책이나



괴물에 대한 책도 좋아요.

1단계(0~15개월 영아) 프로그램 안내

책 내용

아기 침팬지가 책을 읽으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어요. 어떤 책을 읽고 있길래 저렇게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을까요? 아기 침팬지는 웃기는 책도 좋고 무서운 책도 좋고 동요 책도 좋아한대요. 공룡에 대한 책이나 괴물에 대한 책도 좋고 숫자세기, 글자 배우는 책도 좋고, 우주에 대한 책이나 해적에 대한 책도 좋아한다고 해요. 아기 침팬지는 노래책이나 신기한 책도 모두 좋아한대요. 책을 머리에 이고 걸으며 미소 짓는 아기 침팬지가 참 즐거워 보이네요. 영유아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소재들을 활용해서 아기 침팬지가 즐겁게 책을 읽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며 영유아의 책에 대한 흥미와 독서 행동의 모방을 이끌어내는 책입니다.

책 특징

- 테두리가 있는 장면 배치와 리듬감 있는 반복 문장으로 보고, 듣는 재미를 느끼게 한다.
- 영유아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아기 침팬지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흥미를 유발한다.
- 단순하고 정겨운 인물의 묘사와 따듯한 색감의 사용이 영유아들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 쉽고 간결한 어휘로 다양한 책의 종류를 소개하며 독서 행동의 모방과 독서 흥미를 높인다.

교육적 효과

- 책에 대한 흥미를 높인다.
- 책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게 한다.
- 책 읽기의 즐거움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 책놀이를 오감발달을 자극하며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선정 도서의 통합적 책놀이 예시



함께 보면 좋은 책

- 『멋진 책이 될래요』 스키야마 가나요 글·그림, 문시영 옮김, 국민서관

1단계(0~15개월 영아) 프로그램 안내

2차시

누구게?

그림책 제목	누구게?
지은이	최정선 글, 이해리 그림
출판사	보림
출판연도	2016
책의 크기	150*175mm



책 표지





책의 일부 장면



1단계(0~15개월 영아) 프로그램 안내

책 내용

초록 나뭇잎으로 눈을 가린 동물이 자신이 누구인지 맞춰 보라고 해요. 커다란 몸집, 가는 팔, 뾰족한 발톱, 빠죽한 꼬리 누굴까 궁리하지요. “개구쟁이 공룡?” 답을 하며 책장을 넘기면 “맛있다!” 하며 눈이 동그란 공룡이 나타납니다. 까꿍 놀이에 수수께끼 놀이가 결합되었어요. “누구게?”, “000야”가 반복되며 문답식 놀이와 재미있는 입말을 즐길 수 있어요.

책 특징

- 실물(나뭇잎)과 그림의 조화가 뛰어나다.
- 절제된 색과 역동적인 선이 풍부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 표정이 살아있는 동물 캐릭터가 매력적이다.
- 캐릭터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단어를 사용한다.

교육적 효과

- 까꿍 놀이를 통해 대상의 영속성을 알게 한다.
- 다양한 동물을 알게 한다.
-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한다.





선정도서의 통합적 책놀이 예시



함께 보면 좋은 책

- 『누구 얼굴』 김정희 글, 김유대 그림, 사계절

1단계(0~15개월 영아) 프로그램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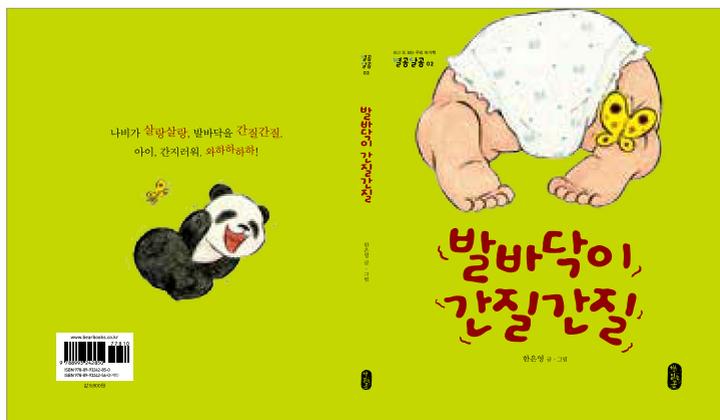
3차시

발바닥이 간질간질

그림책 제목	발바닥이 간질간질
지은이	한은영 글 · 그림
출판사	책읽는곰
출판연도	2013
책의 크기	180*215mm



책 표지





책의 일부 장면

보송보송 새하얀 밭.
누구 발바닥일까?
살랑살랑 간질간질.



둥글둥글 딱딱한 밭.
누구 발바닥일까?
살랑살랑 간질간질.



이리이리히.
나야, 나, 밭!



1단계(0~15개월 영아) 프로그램 안내

책 내용

노랑나비가 날아와 보송보송 새하얀 발바닥에 앉아요. 누구 발바닥일까요? 살랑살랑 나비 날개짓은 간질간질 발바닥을 간지럽혀요. 웃음을 터뜨리는 동물은 바로 토끼네요. 노랑나비는 또 다른 동물의 발바닥에 날아가 살랑살랑 날개짓을 하고 동물들은 웃음을 터뜨려요. 동물들의 발바닥을 강조한 뒷모습을 보여주고 이어지는 다음 장에 온몸으로 웃는 전체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책 특징

- 부분에서 전체로 확대되는 방식으로 그림이 구성되어 있다.
- 나비를 등장 시켜 영아의 시선을 붙잡는다.
- 등장인물이 따뜻하고 유쾌하다.
- 다양한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하고 있다.

교육적 효과

- 발바닥을 알게 한다.
- 다양한 동물을 알게 한다.
- '간질간질'의 느낌을 경험하게 한다.
- 모두 함께 웃는 모습을 보며 즐거움과 따뜻함을 느끼게 한다.





선정도서의 통합적 책놀이 예시



함께 보면 좋은 책

- 『내 배꼽 어딤지?』 캐런 카츠 글·그림, 미술연필 옮김, 보물창고

1단계(0~15개월 영아) 프로그램 안내

4차시

너에게 주고 싶은 책

그림책 제목	너에게 주고 싶은 책
지은이	마이클 솔더스 글, 테리 와이드너 그림
출판사	천개의바람
출판연도	2012
책의 크기	254*254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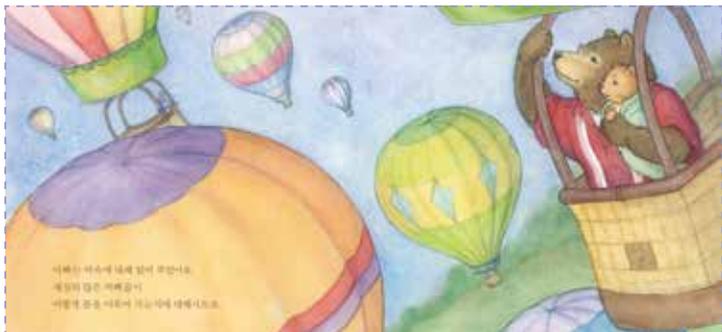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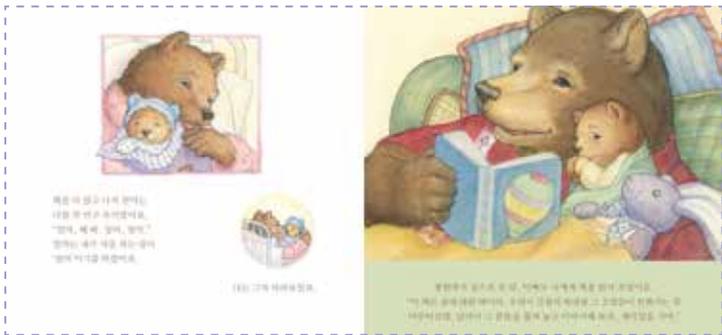


책 표지





책의 일부 장면



1단계(0~15개월 영아) 프로그램 안내

책 내용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날부터 엄마, 아빠, 형, 삼촌, 이모, 할머니까지 온 가족이 책을 읽어 줍니다. 읽어주는 책도 다양하지요. 아기는 사랑과 꿈, 모험과 웃음, 가족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요. 책을 읽어주며 엄마는 아기의 첫 말이 엄마이기를, 아빠는 아빠이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아기가 자신을 불러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아기의 첫말은 '책'이에요. 그 근사한 말에 온 가족이 기뻐합니다.

책 특징

- 파스텔톤의 색채가 따뜻하고 행복한 느낌을 준다.
- 책 읽기가 일상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 책과 함께 자라는 아기를 보여준다.
- 아기의 말문이 터지기를 기다리는 가족들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교육적 효과

- 책 읽기 시간이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임을 느끼게 한다.
- 책에 담긴 소중한 가치를 알게 한다.
- 책과 함께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음을 느끼게 한다.





선정도서의 통합적 책놀이 예시



함께 보면 좋은 책

- 『도서관 아이』 채인선 글, 배현주 그림, 한울림어린이

2단계(16~23개월 영아) 프로그램 안내

부모를 위한 영유아 발달 특징 안내

16개월~23개월 영아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언어발달이 촉진되면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의 영아는 처음엔 사물의 이름을 말하다가 두 단어를 연결하여 문장을 말하게 되고 차츰 자신의 감정표현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뇌 발달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언어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과 친지들은 부드럽고 친절한 자극을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제자리만 지키고 있던 영아가 일어서서 걷기 시작한다는 것은 영아에게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신기하고 경탄할만한 일입니다. 처음엔 집안에서 안전하게 걷다가 균형 잡힌 걸음걸이가 익숙해지면 점차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알맞은 그림책을 자주 읽어주는 것은 신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의 촉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표준보육 과정, 누리과정에 기초한 영유아 돌보기

생후 18개월 정도가 되면 영아는 색깔을 구분하며 책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친근한 장난감에게 하는 애착 행동을 나타내며 능동적으로 가지고 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아이의 곁에 항상 그림책을 두고 친근하게 느끼며 자주 접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책을 고를 때는 색상이 선명하고 그림이 단순하면서도 아름답게 묘사된 영유아용 도서를 선택해야 하며 교통기관, 동물이나 사람, 장난감 등 아이에게 친숙한 것들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책 이야기를 들려주며 도서판과 서점 나들이로 다양한 책과 만나는 기회를 주고 그림책을 보여줄 때는 동요처럼 가락을 붙여 들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 하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아이와 함께합니다.
- 둘. 감각 및 기본 신체운동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아이가 자신의 신체를 탐색하며 대소 근육을 조절해 보고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놀이를 규칙적으로 함께합니다.
- 셋. 말소리를 구분하고 의사소통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다양한 말소리를 들려주고 연령에 맞는 양질의 그림책을 자주 읽어줍니다.
- 넷. 친숙한 사람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아이와 눈을 맞추며 사랑을 표현해주고 아이 자신의 감정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 다섯.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소리, 움직임, 색, 모양에 호기심을 느끼고 반응하는 놀이 활동을 자주 함께합니다.
- 여섯. 보고, 듣고, 만지면서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가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해 경험하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해줍니다.



부모를 위한 통합적 책놀이 안내

책은 영유아의 생활과 함께합니다. 일상에서 책으로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놀이 경험은 영유아의 발달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책으로 전개하는 다양한 놀이는 영유아의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능력 등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표준보육 과정, 누리과정에 기초한 영유아랑 책 읽기

- 하나. 책을 비롯한 다양한 인쇄물에 관심을 갖도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 둘.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책을 읽어줍니다.
- 셋. 양육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책을 보는 것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친숙한 책을 반복하여 읽어줍니다.
- 넷. 영유아가 다양한 형태에 친숙함을 느끼며 구분할 수 있도록 반복하여 읽어줍니다.
- 다섯. 책을 읽어줄 때 바르게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며, 매일 규칙적으로 책을 읽어줍니다.
- 여섯. 책 읽기에 관심을 보이는 영유아의 행동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 일곱. 좋아하는 책을 반복해서 읽어주어 책 읽기의 즐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 여덟. 책을 읽은 후 관련된 놀이를 하며, 영유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 아홉. 책에 나오는 단어, 문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집중 행동(소리의 고저장단 등 변화)을 하며 읽어줍니다.
- 열. 동요, 동시, 동화 등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어줍니다.
- 열하나. 자신의 경험과 상상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즐겁게 나누도록 합니다.

2단계(16~23개월 영아) 프로그램 안내

통합적 책놀이 예시 안내

1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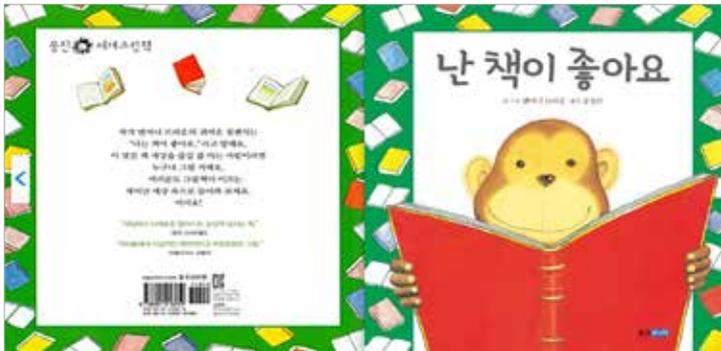
난 책이 좋아요

그림책 제목	난 책이 좋아요
지은이	앤서니 브라운 글·그림
옮긴이	공경희 옮김
출판사	웅진주니어
출판연도	2017
책의 크기	180*200mm



책 표지

책 표지





책의 일부 장면



나는 책이 좋아요.



웃기는 책도 좋고



무서운 책도 좋아요.



전래 동화 책이나



공룡에 대한 책이나



괴물에 대한 책도 좋아요.

2단계(16~23개월 영아) 프로그램 안내

책 내용

아기 침팬지가 책을 읽으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어요. 어떤 책을 읽고 있길래 저렇게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을까요? 아기 침팬지는 웃기는 책도 좋고 무서운 책도 좋고 동요 책도 좋아한대요. 공룡에 대한 책이나 괴물에 대한 책도 좋고 숫자세기, 글자 배우는 책도 좋고, 우주에 대한 책이나 해적에 대한 책도 좋아한다고 해요. 아기 침팬지는 노래책이나 신기한 책도 모두 좋아한대요. 책을 머리에 이고 걸으며 미소 짓는 아기 침팬지가 참 즐거워 보이네요. 영유아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소재들을 활용해서 아기 침팬지가 즐겁게 책을 읽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며 영유아의 책에 대한 흥미와 독서 행동의 모방을 이끌어내는 책입니다.

책 특징

- 테두리가 있는 장면배치와 리듬감 있는 반복 문장으로 보고, 듣는 재미를 느끼게 한다.
- 영유아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아기 침팬지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흥미를 유발한다.
- 단순하고 정겨운 인물의 묘사와 따듯한 색감의 사용이 영유아들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 쉽고 간결한 어휘로 다양한 책의 종류를 소개하며 독서 행동의 모방과 독서 흥미를 높인다.

교육적 효과

- 책에 대한 흥미를 높인다.
- 책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게 한다.
- 책 읽기의 즐거움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 책놀이를 오감발달을 자극하며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선정도서의 통합적 책놀이 예시



함께 보면 좋은 책

- 『멋진 책이 될래요』 스기야마 가나요 글·그림, 문시영 옮김, 국민서관

2단계(16~23개월 영아) 프로그램 안내

2차시

분홍 보자기

그림책 제목	분홍 보자기
지은이	윤보원
출판사	창비
출판연도	2015
책의 크기	216*171*15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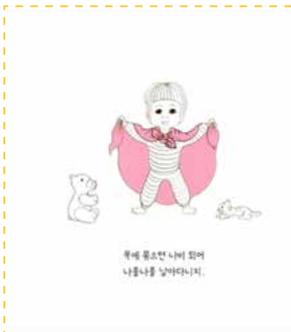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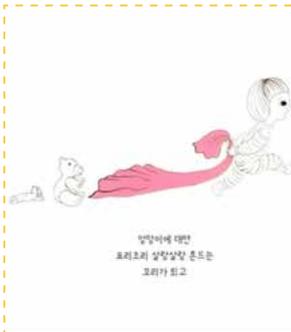


책 표지





책의 일부 장면



2단계(16~23개월 영아) 프로그램 안내

책 내용

할머니가 가지고 오신 분홍 보자기는 아이의 상상 보자기가 됩니다. 엉덩이와 만나면 꼬리가 되고, 목에 두르면 날개가 되고, 허리에 묶으면 드레스가 되어 공주님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아이는 보자기를 통해 마음껏 상상의 세계와 만납니다. 곰은 늘 아이와 보자기 상상 놀이를 함께 합니다. 곰에 안겨 편안한 표정을 짓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든 아이의 모습에서 평안이 느껴집니다.

책 특징

- 친숙한 보자기를 그림책의 주요 소재로 다루고 있다.
- 글이 제시하는 상황을 오롯이 그림으로 보여준다.
- 영유아가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글과 그림이 구성되어 있다.

교육적 효과

- 보자기 놀이를 통해 각 영역의 발달을 돕는다.
- 시공간이 확장되는 등 상상력을 향상시킨다.
- 책과 함께하는 놀이를 통해 책에 친숙함을 느끼게 한다.
- 책 읽기와 책놀이가 일상적인 생활임을 깨닫게 한다.





선정도서의 통합적 책놀이 예시



(...) 함께 보면 좋은 책

- 『효재의 보자기 놀이』 이효재 글, 김은정 그림, 마루벌

2단계(16~23개월 영아) 프로그램 안내

3차시

싫어! 싫어! 쿵!

그림책 제목	싫어! 싫어! 쿵!
지은이	이경은 글, 김유리 그림
출판사	드림피그
출판연도	2012
책의 크기	220*220mm



책 표지





책의 일부 장면



2단계(16~23개월 영아) 프로그램 안내

책 내용

꼬마 다람쥐 “피터”가 ‘싫어 싫어 병’에 걸렸어요. 밥 먹기도 싫고, 이 닦기도 싫고, 엄마, 아빠도 싫다고 했어요. ‘싫어 싫어 병’에 걸린 아이들을 찾아다니는 ‘콩괴물’이 피터를 찾아오게 됩니다.

양치하기를 싫어하면 치아가 모두 썩어 버리고, 안 씻고 자면 벌레들이 같이 자자고 이불 위로 올라오지요. 밥 먹기, 이 닦기, 씻기 등 바른 생활습관에 대해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책 특징

- 친숙한 동물캐릭터를 등장 시켜 책에 흥미를 돋운다.
- 행동에 변화를 주고, 생활습관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다.
- 만 2세 영유아의 발달 특성이 잘 드러나 있다.

교육적 효과

- 발달단계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언어 사용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게 한다.
- 생활 태도에 변화를 줄 수 있다.
- 그림책을 통해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한다.





선정도서의 통합적 책놀이 예시



함께 보면 좋은 책

- 『NO! 무조건 싫어!』 트레이시 코드로이 글, 팀 윈스 그림, 애플비
- 『안돼 안돼! 좋아 좋아!』 레슬리 패트리셀리 저, 마술연필 율김, 보물창고

2단계(16~23개월 영아) 프로그램 안내

4차시

책 먹는 괴물

그림책 제목	책 먹는 괴물
지은이	저스틴 클라크, 아서 베이스팅 글 툼 젤레트 그림
출판사	노란상상
출판연도	2016
책의 크기	250*250*15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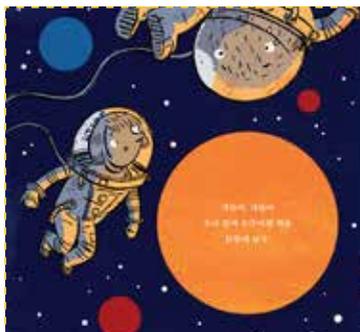


책 표지





책의 일부 장면



2단계(16~23개월 영아) 프로그램 안내

책 내용

책을 읽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는 바로 괴물이 책을 찢어 먹는 소리였어요. 책은 먹는 것이 아니라 읽는 거라며 아이는 괴물에게 알려줍니다. 괴물은 아이와 함께 책을 읽으며 우주를 탐험하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남극의 펭귄을 비롯해서 자신과 닮은 괴물도 만납니다. 괴물은 책을 읽으며 책의 재미에 흠뻑 빠집니다.

책 특징

- 콜라주 기법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 쉬운 단어와 짧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주요 인물을 크게 그림으로써 인물의 행동과 표정이 상세하게 드러난다.
- 인물이 책 중앙에 배치되어 영아가 안정적으로 책에 시선을 두게 한다.

교육적 효과

- 책을 바르게 이용하는 태도를 기르게 한다.
- 책을 통해 다양한 세상을 경험하게 한다.
- 책과 친해지고 즐겁게 책을 읽는 습관을 갖게 한다.





선정도서의 통합적 책놀이 예시



함께 보면 좋은 책

- 『책은 내 친구야』 제인 블랫 글, 사라 마시니 그림, 단비어린이

3단계(24~48개월 유아) 프로그램 안내

부모를 위한 영유아 발달 특징 안내

24개월 이후의 영유아는 발달 특징상 영아기와 유아기의 특징이 모두 나타나며 빠르고 더딘 발달상의 개인차와 성격적인 독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영유아의 일반적 발달 특성과 함께 유아의 개별적인 개성을 존중하며 양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유아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면서 자율성이 증가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자 고집부리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유아의 자율적인 면을 격려하면서 안전하게 주변을 탐색하며 스스로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영유아는 일반적인 상징과 의미를 습득하고 자신만의 상상력을 키우면서 인지능력이 발달하고 질문, 대화, 노래, 말놀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언어를 배우면서 언어 사용 능력도 정교해집니다. 사회, 정서발달 면에서는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즐거움, 분노, 슬픔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한편 또래와의 협동, 차례 지키기 등의 사회적 규칙과 관련된 행동을 발달시키고 함께 어울리면서 사회적인 발달을 이루어갑니다.

표준보육 과정, 누리과정에 기초한 영유아 돌보기

생후 24개월 이후의 영유아는 신체 근육의 조절력과 함께 행동반경이 넓어지면서 책을 장난감 삼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잡아 뜯기도 하므로 표지는 튼튼하고, 모서리가 날카롭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영유아를 위한 그림책은 친근감을 줄 수 있는 동물이 나오는 우화나 반복 구절이 있는 이야기와 '이 닦기, 옷 입기' 등 유아의 생활과 밀착된 소재로 구성된 책이 좋습니다. 이러한 그림책은 영유아가 자신과 타인을 인식하며 바람직한 성장을 이루어가도록 자연스럽게 이끌어 줍니다. 또한 어휘력과 인지발달이 가속되는 시기이므로 낱말, 색깔, 크기, 수 등 개념을 익힐 수 있는 그림책도 읽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책 읽기를 학습 도구가 아닌 보호자와 함께 하는 즐거운 놀이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 하나. 기본 운동 능력과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아이와 함께 실천합니다.
- 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바른 언어사용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아이와 자주 대화하며 규칙적으로 연령에 맞는 양질의 그림책을 읽어줍니다.
- 셋.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아이와 눈을 맞추며 사랑을 표현해주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또래와 어울릴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 넷.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 경험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리, 움직임, 색, 모양에 호기심을 느끼며 체험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이끌어줍니다.
- 다섯.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 세계를 탐구하며, 일상생활에서 수학적·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줍니다.



부모를 위한 통합적 책놀이 안내

책은 영유아의 생활과 함께합니다. 책으로 생활 속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놀이 경험은 영유아의 발달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책으로 전개하는 다양한 놀이는 영유아의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능력 등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표준보육 과정, 누리과정에 기초한 영유아랑 책 읽기

- 하나. 책을 비롯한 다양한 인쇄물에 관심을 갖도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 둘.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책을 읽어줍니다.
- 셋. 양육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책을 보는 것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친숙한 책을 반복하여 읽어줍니다.
- 넷. 영유아가 다양한 형태에 친숙함을 느끼며 구분할 수 있도록 반복하여 읽어줍니다.
- 다섯. 책을 읽어줄 때 바르게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며, 매일 규칙적으로 책을 읽어줍니다.
- 여섯. 책 읽기에 관심을 보이는 영유아의 행동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 일곱. 좋아하는 책을 반복해서 읽어주어 책 읽기의 즐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 여덟. 책을 읽은 후 관련된 놀이를 하며, 영유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 아홉. 책에 나오는 단어, 문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집중 행동(소리의 고저장단 등 변화)을 하며 읽어줍니다.
- 열. 동요, 동시, 동화 등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어줍니다.
- 열하나. 자신의 경험과 상상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즐겁게 나누도록 합니다.

3단계(24~48개월 유아) 프로그램 안내

통합적 책놀이 예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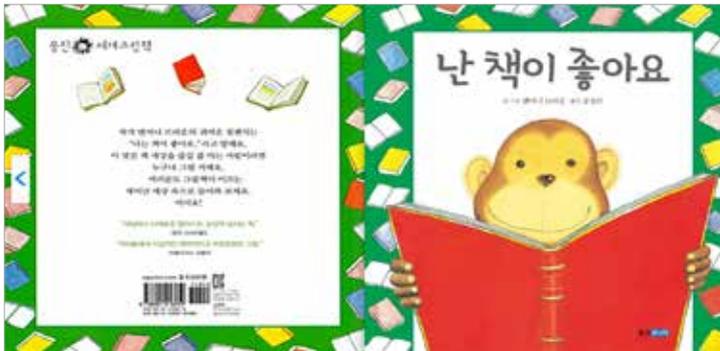
1차시

난 책이 좋아요

그림책 제목	난 책이 좋아요
지은이	앤서니 브라운 글·그림
옮긴이	공경희 옮김
출판사	웅진주니어
출판연도	2017
책의 크기	180*200mm



책 표지





책의 일부 장면



나는 책이 좋아요.



웃기는 책도 좋고



무서운 책도 좋아요.



전래 동화 책이나



공룡에 대한 책이나



괴물에 대한 책도 좋아요.

3단계(24~48개월 유아) 프로그램 안내

책 내용

아기 침팬지가 책을 읽으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어요. 어떤 책을 읽고 있길래 저렇게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을까요? 아기 침팬지는 웃기는 책도 좋고 무서운 책도 좋고 동요 책도 좋아한대요. 공룡에 대한 책이나 괴물에 대한 책도 좋고 숫자세기, 글자 배우는 책도 좋고, 우주에 대한 책이나 해적에 대한 책도 좋아한다고 해요. 아기 침팬지는 노래책이나 신기한 책도 모두 좋아한대요. 책을 머리에 이고 걸으며 미소 짓는 아기 침팬지가 참 즐거워 보이네요. 영유아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소재들을 활용해서 아기 침팬지가 즐겁게 책을 읽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며 영유아의 책에 대한 흥미와 독서 행동의 모방을 이끌어내는 책입니다.

책 특징

- 테두리가 있는 장면 배치와 리듬감 있는 반복 문장으로 보고, 듣는 재미를 느끼게 한다.
- 영유아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아기 침팬지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흥미를 유발한다.
- 단순하고 정겨운 인물의 묘사와 따뜻한 색감의 사용이 영유아들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 쉽고 간결한 어휘로 다양한 책의 종류를 소개하며 독서 행동의 모방과 독서 흥미를 높인다.

교육적 효과

- 책과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인다.
- 다양한 책의 종류와 내용을 알게 한다.
- 책 읽기의 즐거움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 공룡, 괴물, 두껍거나 얇은 것, 전래동화나 수세기 등에 대한 개념을 알게 한다.





선정도서의 통합적 책놀이 예시



함께 보면 좋은 책

- 『멋진 책이 될래요』 스기야마 가나요 글·그림, 문시영 옮김, 국민서관

3단계(24~48개월 유아) 프로그램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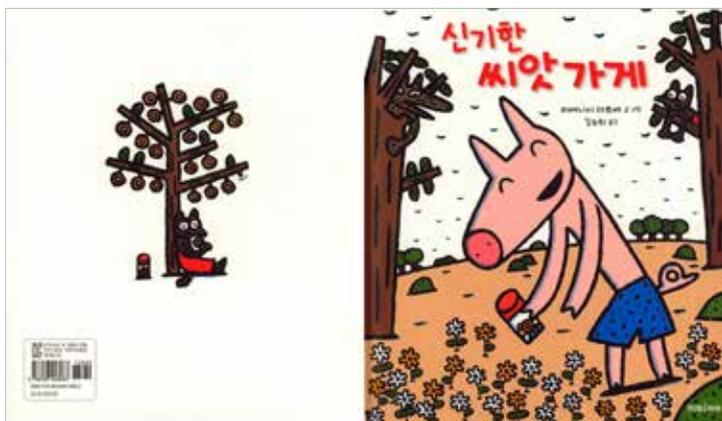
2차시

신기한 씨앗가게

그림책 제목	신기한 씨앗가게
지은이	미야니시 다쓰야
출판사	미래아이
출판연도	2016
책의 크기	213*247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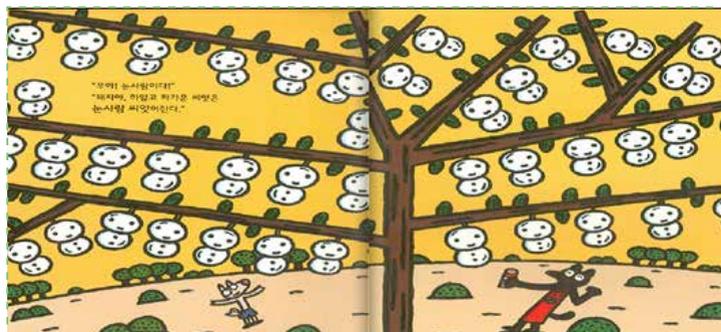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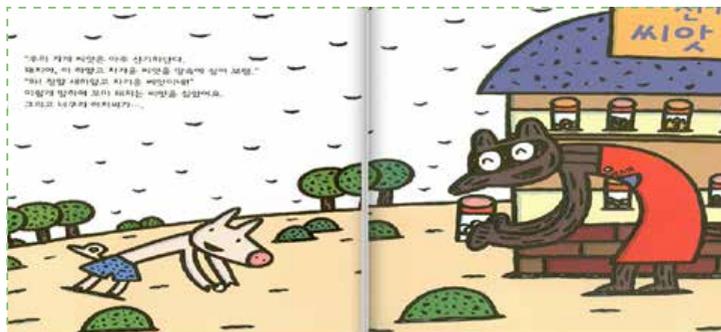


책 표지





책의 일부 장면



3단계(24~48개월 유아) 프로그램 안내

책 내용

호기심 많은 꼬마 돼지가 어느 날 너구리 아저씨의 신기한 씨앗 가게를 발견했어요. 꼬마 돼지는 너구리 아저씨에게 하얗고 차가운 씨앗을 얻어 땅속에 심어보지요. 너구리 아저씨의 “씨씨씨! 앓앓! 신통방통 씨앗! 씨앗!”이라는 주문에 씨앗은 쑥쑥 자라나 나무가 되고 흰 눈사람 열매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꼬마 돼지가 소개하는 씨앗에는 신기한 열매가 가득 열리지요. 꼬마 돼지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어떤 열매가 열리게 될까 상상하게 됩니다.

책 특징

- 굵은 윤곽선이 영유아의 시선을 끈다.
- 단어의 반복, 의성어와 의태어를 비롯한 말의 유희로 영유아의 흥미를 끈다.
- 씨앗으로 촉발된 거침없는 상상력으로 영유아에게 즐거움을 준다.

교육적 효과

- 일상에서 책 속 단어를 이용해 말의 유희를 즐기도록 자극한다.
- 씨앗과 식물(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유추하도록 이끈다.
- 상상력을 향상시킨다.





선정도서의 통합적 책놀이 예시



함께 보면 좋은 책

- 『무엇일까?』 레베카콕 글, 엄혜숙 옮김, 상상스쿨

3단계(24~48개월 유아) 프로그램 안내

3차시

숨바꼭질 나라

그림책 제목	숨바꼭질 나라
지은이	임선경
출판사	노란돼지
출판연도	2015
책의 크기	217*190mm



책 표지





책의 일부 장면



3단계(24~48개월 유아) 프로그램 안내

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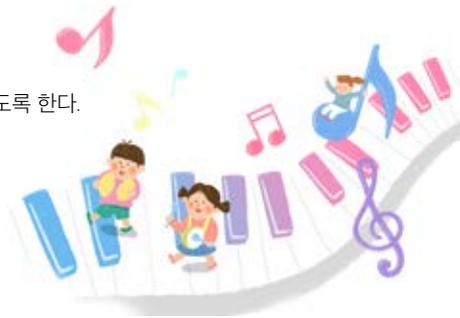
숨바꼭질할 친구가 없는 아이는 동물들과 숨바꼭질 놀이를 하지요. 전래동요를 부르듯 노래하는 아이의 “꼭꼭 숨어라, 옷자락이 보일라~”는 영유아들에게 친구들과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해 친구의 소중함도 깨닫게 해줍니다. 동물들이 숨은 장소를 보여주며 공간에 대한 기본개념을 놀이로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책 특징

- 기본적인 공간개념을 쉽게 설명한다.
- 전래동요를 이용한 언어 표현으로 리듬감을 준다.
- 아기자기한 그림과 따뜻한 색으로 영유아에게 안정감을 준다.

교육적 효과

- 영유아의 공간지각 능력을 향상시킨다.
- 어휘력을 향상시킨다.
-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다.
- 반복적인 언어를 통해 리듬감을 느끼고 익히도록 한다.





선정도서의 통합적 책놀이 예시



함께 보면 좋은 책

- 『숨바꼭질』 앤서니 브라운 글 그림, 공경희 옮김, 웅진주니어

3단계(24~48개월 유아) 프로그램 안내

4차시

사랑에 빠진 책

그림책 제목	사랑에 빠진 책
지은이	세드릭 라마디에
출판사	길벗어린이
출판연도	2018
책의 크기	185*24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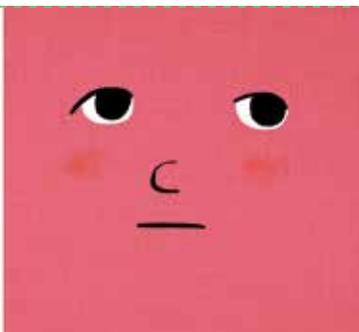
책 표지





책의 일부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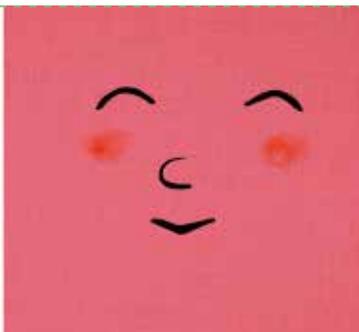
흠.....
무슨 일일까요?
이 책이 무뎠대요.
고민이 있나 봐요.



가가가 가셔서 물어볼게요.
무슨 일이지?
아.....
이 책이 사람에게 짜증났고,
수줍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네요.



이 책은 여러분이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기며
즐겁게 읽는 걸 좋아한다고요.
책을 기쁘게 하고 싶나요?
책장을 넘길 때마다
미소를 지어 주세요.



3단계(24~48개월 유아) 프로그램 안내

책 내용

책이 우울한가 봐요. 생쥐는 책에게 왜 우울한지, 즐거운지를 물어보고 책은 표정으로 자신의 감정을 생쥐에게 알려주지요. 여러 감정을 절제된 색과 선으로 표현하여 감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책을 읽기 전에는 사랑에 대해 궁금하던 유아들도 책을 읽고 나면 사랑이라는 감정은 항상 자기 옆에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책 특징

- 묻고 답하는 글 구성이 영유아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 제한된 색으로 풍부한 이야기를 제공한다.
- 흥미로운 캐릭터가 이야기에 몰입을 더한다.
- 큰 판형의 보드책으로 영유아의 접근을 쉽게 한다.

교육적 효과

- 자연스럽게 영유아의 감정을 드러내게 한다.
- 문답식 글 구성으로 책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끈다.





선정도서의 통합적 책놀이 예시



함께 보면 좋은 책

- 『우리는 언제나 책을 읽을 수 있어요』 헬레인 베키 글, 마크 호프만 그림, 정세진 옮김, 썬더키즈

책과 함께 누리는 내 생애 첫 도서관

부모
양육자편

경기도 독서포탈 북매직 안내

책과 함께 누리는 내 생애 첫 도서관

부모
양육자편

경기도 독서포탈 북매직 안내

영유아의 심신발달을 돕는 그림책 어떻게 고르고 읽어줄까요?



어린아이가 책을 가까이하며 독서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은 건강한 심신 발달과 평생 독자로의 성장을 돕는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애릭 시그먼 박사는 “아이가 잠들기 전에 책을 읽어주는 것은 아이에게 정서적 안정과 휴식을 주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가치와 도덕을 전하면서 이를 공유하는 중요한 수단이다.”고 강조하며 아이들에 대한 책 읽어 주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품에 안고 책을 읽어주면 정서적 교감을 통한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지능발달과 인성의 바탕이 되는 가치관을 세워주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영유아들은 글이나 그림의 형식에 관계없이 아주 단순하고 그림이 분명한 책을 좋아합니다. 또한 그림이 튀어나오는 책이나 촉감이 느껴지거나 오감을 자극하는 책에도 쉽게 흥미를 느낍니다. 그러므로 영유아를 위한 그림책을 고르실 때는 글자가 많은 책보다는 선명하고 단순한 그림이 있는 책이 적합합니다. 특히 그림책의 경우엔 글과 그림이 상황에 맞게 잘 어울리게 그려졌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뉴질랜드의 도서관 사서이자 아동문학 평론가인 화이트(Dorothy White)는 그림책(picture book)의 특징과 가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림책은 어린이가 처음으로 만나는 책입니다. 앞으로의 기나긴 독서 생활을 통해 읽게 될 책 가운데 가장 소중한 책입니다. 그 아이가 그림책 속에서 찾아낸 즐거움의 양에 따라 평생 책을 좋아하게 되느냐 그렇게 못하느냐 가 결정됩니다. 때문에 그림책은 가장 아름다운 책이어야 합니다. 화가와 작가, 편집자, 제작자, 그리고 독자가 어우러져서 어떤 책보다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조각이나 영화처럼 그림책도 하나의 독자적인 예술 형식입니다.”

영유아들에게는 그림만 보고도 한 눈에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림과 비교적 단순한 이야기 구조, 되풀이되는 말, 의성어, 의태어와 같은 반복된 어휘와 시적인 리듬감이 느껴지는 문장이 있는 그림책이 좋습니다. 영유아들이 좋아하는 소재나 주제는 아이다운 마음을 생동감 있고 단순하게 그려내어 감동과 재미를 선사해주는 그림책입니다.

먹거리나 배변 등 기본적인 욕구를 다룬 소재나 삶의 밝고 어두운 면을 진솔하게 그려내는 옛이야기, 미숙한 인물들과 황당한 사건들이 재미있게 전개되는 우화, 생활 그림책들은 영유아와 어린 자녀들이 특히 선호하는 책입니다.

경기도 독서포탈 북매직 안내

영유아기 자녀를 위해 책을 구입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소리 내어 읽어보는 것입니다. 소리 내어 책을 읽어보면, 자녀에게 읽어주기 좋은 책과 그렇지 않은 책을 구분하는 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장이 술술 읽히지 않거나, 리듬감을 살리려고 다시 읽어야 한다면 단어 선택이 완벽하지 않거나 단어의 위치가 잘못 놓였으므로 좋은 책이 아닙니다.

책을 읽는 것이 행복한 경험이고 재미있는 일이라는 것을 자녀에게 경험하도록 하려면 책을 읽어 주는 동안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을 읽어주기 전에 몸 놀이나 책놀이를 아기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유아기 자녀들은 리듬감과 반복 구절이 있는 동요, 손가락 놀이를 좋아합니다. 부모가 반복되는 구절을 읽어 줄 때 아이를 무릎에 앉혀 놓고 다리를 올렸다 내리거나, 몸을 살짝 흔들여 주거나, 손뼉을 치면서 소리와 동작을 일치시키면 무척 즐거워합니다. 비슷한 구조로 운율이나 구절이 반복되거나 분명한 후렴구가 있거나, 재미있는 의성어, 의태어가 있는 그림책을 연속적으로 읽어줄 때 자녀는 책에서 들은 단어를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책을 읽어주실 때 책 속의 그림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글을 아직 모르는 영유아들에게 그림은 천 가지 단어를 말해 주고, 이야기를 이해하도록 돕는 효과가 있으므로 그림을 뛰어넘으면 안 됩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그림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할 말도 많았으므로 그림이 자연스럽게 책에 대한 대화를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영유아기 자녀에게 책을 읽어 주실 때 주의할 점은 자녀가 반복해서 읽기 원하는 책이나 장면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며 충분히 반복해서 읽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좋아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처음 들었을 때와는 다른 감정으로 이야기를 새롭게 느끼고 이해하면서 자기 나름의 이해와 인식을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또한 부모가 책을 읽는 동안 자녀가 책을 보면서 소리를 따라 눈으로 단어를 볼 수 있다면, 손가락으로 짚어 가면서 읽어 줄 필요는 없지만 반복해서 읽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반복해서 읽어주기로 단어가 같은 식으로 발음되고, 같은 구두점이 나오고, 같은 글자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책 속의 특정 인물이나 장면에 흥미를 보이며 집중할 경우에는 가능한 충분히 탐색하며 즐길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자녀가 하는 질문은 간단하게 답변하며 긍정적으로 반응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주인공이 겪는 어려움을 마치 자신이 겪는 일인 것처럼 느끼고, 정직하고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던 주인공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기쁨을 함께 만끽하면서 자신도 정직하고 바른 태도로 살아가려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지니게 될 것입니다.

도서관학자였던 듀리(Drury, Francis K.)는 “사서가 친밀한 관계와 세심한 관심으로 적당한 책을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상황(Right book to the right person at the right time)에서 제공할 때 지식과 정보습득뿐 아니라 삶의 위기까지도 도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독서 상담 서비스와 상황별 독서목록 개발의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독서 상담’이란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장 단계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책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도록 상황에 걸맞은 책과 독서 활동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태아와 영유아의 책 읽어주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우리 아기 첫 상황별 그림책’ 시리즈를 개발하여 소개합니다.





우리 아기 첫 상황별 그림책

그럼 내가 먹을까?



- 글·그림: 김선영, 배현주
- 출판사: 키워북스
- 한줄 평: 먹는 즐거움을 배우고 밥 투정하지 않아요!

눈 코 입



- 글·그림: 백주희
- 출판사: 보리
- 한줄 평: '눈 코 입 놀이' 하며 몸과 마음이 자라요!

밤에도 혼자 쉬해요!



- 글·그림: 카트린 메스메예르, 클로드 K. 뒤부아
- 출판사: 다림
- 한줄 평: 혼자 배변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어요!

변비책



- 글·그림: 천미진, 이자은
- 출판사: 키즈엠
- 한줄 평: 변비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식습관을 익혀요!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요



분홍 보자기



- 글·그림: 윤부원
- 출판사: 청비
- 한줄 평: 보자기로 재미있게 신체 활동 하며 상상력을 키워요!

사랑해! 아기 꼬끼리 코야



- 글·그림: 작은북, 오연진
- 출판사: 블루래빗
- 한줄 평: 풍부한 감각자극으로 뇌 발달을 촉진해요!

소속 입어 볼래?



- 글·그림: 장순녀
- 출판사: 키다리
- 한줄 평: 스스로 치근치근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어딤지? 요깃지!



- 글·그림: 김주영, 강근영
- 출판사: 마루벌
- 한줄 평: 엄마와 아기가 즐겁게 몸 놀이해요!

강아지와 염소새끼



- 글·그림: 권정생, 김병하
- 출판사: 창비
- 한줄 평: 다양한 의성어, 의태어를 들려주기 좋아요!

곤지곤지 잼잼



- 글·그림: 최숙희
- 출판사: 푸른숲주니어
- 한줄 평: '짜짜꿍', '곤지곤지 잼잼' 등 단동심훈을 듣고 익혀요!

구름



- 글·그림: 공광규, 김재홍
- 출판사: 바우슬
- 한줄 평: 열 두 동물이 담긴 구름 이야기를 들으며 상상력을 키워요!

누가 누가 잠자나



- 글·그림: 목일신, 이준섭
- 출판사: 문학동네어린이
- 한줄 평: 잠잘 때 들으면 새근새근 잠이 잘 와요!

잘 들을 수 있어요



사랑해 사랑해 우리 아가



- 글·그림: 문혜진, 이수지
- 출판사: 비룡소
- 한줄 평: 아름다운 동시를 들으며 엄마 사랑을 느껴요!

소풍 가져!



- 글·그림: 안나 클라라 티돌름
- 출판사: 사계절
- 한줄 평: 소풍가는 곰들이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대화해요!

쿠키 한 입의 사랑수업



- 글·그림: 에이미 크루즈 로젠탈, 제인 다이어·브룩 다이어
- 출판사: 책읽는곰
- 한줄 평: 달콤한 사랑의 말을 익힐 수 있어요!

태워 보아요



- 글·그림: 홍진숙, 윤정주
- 출판사: 사계절
- 한줄 평: 책놀이하며 반복적인 일상 언어를 들려줘요!

경기도 독서포탈 북매직 안내



우리 아기 첫 상황별 그림책

글자 먹는 악어



- 글·그림: 닉 브롤리, 니콜라 오반
- 출판사: 사파리
- 한줄 평: 유쾌한 상상력으로 재미 있게 이야기 나눠요!

누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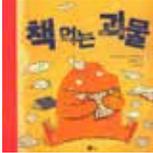
- 글·그림: 최정선, 이혜리
- 출판사: 보림
- 한줄 평: 문고 답하며 동물 이름을 말할 수 있어요!

참 재미있을 거야



- 글·그림: 이상고, 김정선
- 출판사: 재능교육
- 한줄 평: 우리말의 다정함과 즐거움을 느끼며 말놀이해요!

책 먹는 괴물



- 글·그림: 저스틴 클라크·아서 베이스팅, 톰 젤레트
- 출판사: 노란상상
- 한줄 평: 책 속 괴물과 대화하며 책 읽기가 즐거워요!

나도 말할 수 있어요



코끼리 뒤에 누구?



- 글·그림: 뽕상 마티
- 출판사: 보림
- 한줄 평: 동물들과 숨바꼭질하며 동물 이름을 말해요!

한밤중에 아무도 몰래



- 글·그림: 사카이 고마코
- 출판사: 북뱅크
- 한줄 평: 자다가 깨어나 본 느낌을 엄마와 이야기해요!

행복한 거대 괴물



- 글·그림: 최숙희
- 출판사: 웅진주니어
- 한줄 평: 행복하고 재미있게 예쁜 말, 좋은 말을 익혀요!

호랑이가 깨지 않게 조용조용!



- 글·그림: 브리타 테르트립
- 출판사: 사파리
- 한줄 평: 동물 친구들이 호랑이를 깨우지 않도록 자장가를 부르며 도와요!

반대말



- 글·그림: 최정선, 안윤모
- 출판사: 보림
- 한줄 평: 반대말을 따라 읽으며 배울 수 있어요!

봄 숲 봄바람 소리



- 글·그림: 우종영, 레지나
- 출판사: 파란자전거
- 한줄 평: 다채로운 숲 소리에 흥미를 가지고 따라 읽어요!

수박씨를 삼켰어!



- 글·그림: 그렉 피졸리
- 출판사: 토도북
- 한줄 평: 수박씨를 삼킨 후의 유쾌한 상상을 아이가 재미있게 따라 읽어요!

엄마 마중



- 글·그림: 이태준, 김동성
- 출판사: 보림
- 한줄 평: 엄마를 기다리는 아기 마음을 따라 읽어요!

따라 읽을 수 있어요



엄소똥 가나다



- 글·그림: 이나래
- 출판사: 반달
- 한줄 평: 엄마를 따라 읽으며 한글과 점자에 관심을 가져요!

요리요리



- 글·그림: 정인하
- 출판사: 책읽는곰
- 한줄 평: 요리 과정을 따라 읽으면서 한글 모양에 흥미를 느껴요!

쭉!



- 글·그림: 정호선
- 출판사: 창비
- 한줄 평: 뽀뽀 소리에 관심을 갖고 따라 읽어요!

호두야!



- 글·그림: 소마 고태이, 아사누마 도모루
- 출판사: 은나팔
- 한줄 평: 반려동물 이야기를 흥미롭게 따라 읽어요!



우리 아기 첫 상황별 그림책

가나다는 맛있다



- 글·그림: 우지영, 김은재
- 출판사: 책읽는곰
- 한줄 평: 친근한 음식 이름으로 한글을 끼적여 보아요!

가래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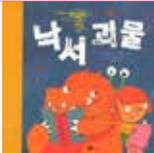
- 글·그림: 사이다
- 출판사: 반달
- 한줄 평: 김쪽한 가래떡이 재미있게 변하는 모양을 끼적여요!

글자 셰이크



- 글·그림: 홍하나
- 출판사: 바람의 아이들
- 한줄 평: 말과 글의 관계에 관심을 갖고 처음 모음 글자 셰이크를 만들어요!

낙서 괴물



- 글·그림: 저스틴 클라크, 아서 베이스팅, 톰 젤레트
- 출판사: 노란상상
- 한줄 평: 마음껏 끼적여요!

끼적이거나 그릴 수 있어요



신통방통 세 가지 말



- 글·그림: 김경희
- 출판사: 웅진주니어
- 한줄 평: 익살스런 캐릭터를 따라 그려요!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 술이는 엄마 마음도 몰라



- 글·그림: 이상희, 혜경
- 출판사: 상상스쿨
- 한줄 평: 서로의 마음을 그려 보아요!

왜 X 100



- 글·그림: 강경수
- 출판사: 시공주니어
- 한줄 평: 궁금한 마음을 그려 보아요!

흑부리 영감과 도깨비



- 글·그림: 오호선, 윤미숙
- 출판사: 길벗어린이
- 한줄 평: 이야기를 따라 끼적여요!

무지개 눈물



- 글·그림: 강성은, 조원희
- 출판사: 장영
- 한줄 평: 아이들이 느끼는 힘겨운 감정들을 풀어내요!

웃음은 힘이 세다



- 글·그림: 허은미, 윤미숙
- 출판사: 한울림어린이
- 한줄 평: 유쾌하고 사랑스럽고 따뜻한 힘을 느껴봐요!

너무 부끄러워!



- 글·그림: 크리스틴 나우만 빌맹, 마리안 바르실롱
- 출판사: 비룡소
- 한줄 평: 부끄러운 감정을 어루만져요!

나는 내가 좋아요



- 글·그림: 윤여림, 배현주
- 출판사: 웅진주니어
- 한줄 평: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음을 키워줘요!

다양한 감정을 느껴요!



기쁨이 슬픔이



- 글·그림: 마츠오카 쿄오코
- 출판사: 재미마주
- 한줄 평: 기쁨은 지켜주고, 슬픔은 위로해요!

화난 책



- 글·그림: 세드릭 라마디에, 뱅상 부르고
- 출판사: 길벗어린이
- 한줄 평: 화난 기분을 이해하고, 디톡여줘요!

두근두근



- 글·그림: 이석구
- 출판사: 고래이야기
- 한줄 평: 소심한 마음을 열어줘요!

울지 말고 말하렴



- 글·그림: 이찬규, 최나미
- 출판사: 애플비
- 한줄 평: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줘요!



우리 아기 첫 상황별 그림책

사랑해 꼭 안아줄 시간



- 글·그림: 필리스 거세이터 밌 그린, 데이비드 워커
- 출판사: 북뱅크
- 한줄 평: 더 많이, 더 자주 안아주면 행복해져요!

아빠와 피자놀이



- 글·그림: 윌리엄 스타이크
- 출판사: 비룡소
- 한줄 평: 상상력과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이 가득해요!

아빠의 두 팔



- 글·그림: 조 위테크, 크리스틴 루세
- 출판사: 키즈엠
- 한줄 평: 아빠의 팔은 언제나 다정하고 든든해요!

엄마 껌딱지



- 글·그림: 카롤 피브, 도로테드 몽프레
- 출판사: 한솔수북
- 한줄 평: 엄마 껌딱지 아이가 자연스레 독립과 성장을 준비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느껴요!



엄마, 잠깐만!



- 글·그림: 앙트아네트 포티스
- 출판사: 한솔수북
- 한줄 평: 느리게 걷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춰 바라보게 해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 사랑의 자장가



- 글·그림: 로버트 먼치, 이세 히데코
- 출판사: 북뱅크
- 한줄 평: 영원히 이어지는 부모자식 간의 사랑을 느껴요!

엄마가 오는 길



- 글·그림: 모토시타 이즈미, 오카다 치야키
- 출판사: 천개의바람
- 한줄 평: 일하는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의 불안감을 다독여 줘요!

우리 아빠는 기린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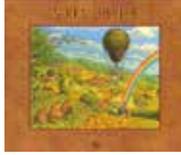
- 글·그림: 스티븐 마이클 킹
- 출판사: 같이보는책
- 한줄 평: 아빠의 들뜸과 사랑으로 행복한 아이의 일상을 다뤄요!

쌍둥이는 너무 좋아



- 글·그림: 엄혜원
- 출판사: 비룡소
- 한줄 평: 쌍둥이 자매의 갈등과 화해를 보여줘요!

누나는 어디에



- 글·그림: 스펀 누르트크비스트
- 출판사: 풀빛
- 한줄 평: 누나를 찾아 떠나는 동생의 마음을 알아요!

동생이 미운 걸 어떡해!



- 글·그림: 로렌 차일드
- 출판사: 국민서관
- 한줄 평: 동생이 생길 때 속상한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미운 오리 티라노



- 글·그림: 엘리슨 머리
- 출판사: 나린글
- 한줄 평: 달라도 형제가 될 수 있어요!

형제의 마음을 이해해요!



숨바꼭질



- 글·그림: 앤서니 브라운
- 출판사: 웅진주니어
- 한줄 평: 숨바꼭질하는 남매의 사랑 하는 법을 깨달아요!

안돼, 내 과자야!



- 글·그림: 백주희
- 출판사: 책읽는곰
- 한줄 평: 과자를 빼앗길까 걱정하는 오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열까지 세면 엄마가 올까?



- 글·그림: 마루아마 아야코
- 출판사: 나는별
- 한줄 평: 동생이 생길 언니의 속마음을 알아봐요!

일요일이 좋아!



- 글·그림: 프란 프레스톤 게논
- 출판사: 풀과바람
- 한줄 평: 고양이 페퍼와 포가 가족이 되는 과정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아기 첫 상황별 그림책

거북아, 뭐 하니?



- 글·그림: 최덕규
- 출판사: 푸른숲주니어
- 한줄 평: 친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어요!

나랑 친구 하자!



- 글·그림: 피터 브라운
- 출판사: 사계절
- 한줄 평: 친구 사귀는 법을 알 수 있어요!

너랑 절대 말 안 해



- 글·그림: 가사이 마리
- 출판사: 북뱅크
- 한줄 평: 친구들에게 미안하다고 먼저 말할 수 있어요!

내 거 (아니)야



- 글·그림: 강소연, 크리스토퍼 와이엔트
- 출판사: 풀빛
- 한줄 평: 서로 양보하는 것이 중요성을 깨달아요!

친구 만드는 법을 알아요!



두더지의 소원



- 글·그림: 김상근
- 출판사: 사계절
- 한줄 평: 처음으로 친구를 만나 함께 하는 즐거움을 느껴요!

따라 하지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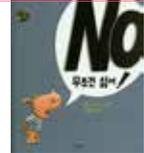
- 글·그림: 정순희
- 출판사: 창비
- 한줄 평: 또래친구와 친해지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마음은 어디에



- 글·그림: 토네 사토에
- 출판사: 북돋움
- 한줄 평: 쿠로와 시로가 친해지는 과정을 알 수 있어요!

NO! 무조건 싫어!



- 글·그림: 트레이시 코드로이
- 출판사: 에플비
- 한줄 평: '싫어'라고 말하는 친구의 마음을 알아요!

두 빛깔이 만났어요



- 글·그림: 이재희
- 출판사: 보림
- 한줄 평: 서로 다르거나 반대되는 빛깔의 다채로움을 감상해 보아요!

노랑이들



- 글·그림: 조혜란
- 출판사: 사계절
- 한줄 평: 미묘한 색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생각이 커진 집



- 글·그림: 리사리 마르니에, 오드 모렐
- 출판사: 책과콩나무
- 한줄 평: 다른 집들의 모습을 통해 상상력을 키울 수 있어요!

아빠, 나한테 물어봐



- 글·그림: 버나드 와버, 이수지
- 출판사: 비룡소
- 한줄 평: 가을의 빛깔과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어요!

아름다움을 느껴 보아요!



어느 조용한 일요일



- 글·그림: 이선미
- 출판사: 글로연
- 한줄 평: 분홍색 페인트 통이 쏟아지면서 그려진 아름다움을 느껴 보아요!

어떤 고양이도 보이니?



- 글·그림: 브랜든 웬젤
- 출판사: 애플비
- 한줄 평: 다양한관점으로 본 고양이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



- 글·그림: 권재희
- 출판사: 노란상상
- 한줄 평: 새로운 시선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느껴보아요!

오잉?



- 글·그림: 홍원표
- 출판사: 웃는돌고래
- 한줄 평: 그림이 주는 기발한 상상력을 느껴보아요!



우리 아기 첫 상황별 그림책

그림을 그려 봐



- 글·그림: 김삼현
- 출판사: 시공주니어
- 한줄 평: 그림을 그리며 상상력을 펼칠 수 있어요!

선



- 글·그림: 이수지
- 출판사: 비룡소
- 한줄 평: 이어지는 선으로 아름다움을 완성해 보아요!

소원을 그리는 아이



- 글·그림: 김평, 홍선주
- 출판사: 책읽는곰
- 한줄 평: 민화에 담긴 의미를 알고 따라 그려 보아요!

소풍



- 글·그림: 존 버닝햄
- 출판사: 토토북
- 한줄 평: 소풍가서 만나는 풍경을 그릴 수 있어요!

상상하는 것을 표현해요!



수박 수영장



- 글·그림: 안녕달
- 출판사: 창비
- 한줄 평: 맛있는 수박 수영장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숲 속 재봉사의 꽃잎 드레스



- 글·그림: 최향량
- 출판사: 창비
- 한줄 평: 숲 속 재봉사의 꽃잎 드레스를 꾸며 볼 수 있어요!

신기한 씨앗 가게



- 글·그림: 미야니시 다쓰야
- 출판사: 미래아이
- 한줄 평: 씨앗에서 자란 나무를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아주아주 특별한 집



- 글·그림: 루스 크라우스, 모리스 샌닥
- 출판사: 시공주니어
- 한줄 평: 상상력을 발휘하여 집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림, 오렌지는?



- 글·그림: 이호백, 이석연
- 출판사: 재미마주
- 한줄 평: 식물의 다양한 색깔과 모양을 알 수 있어요!

당콩따 소리 씨앗



- 글·그림: 이유정
- 출판사: 느림보
- 한줄 평: 사계절을 우리 장단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떼굴떼굴 떼구르르



- 글·그림: 에릭 리트윈 스킷 매군
- 출판사: 뜨인돌
- 한줄 평: 도토리 움직임에 따라 리듬감을 느껴요!

민들레는 민들레



- 글·그림: 김장성, 오현경
- 출판사: 이야기꽃
- 한줄 평: 민들레의 한 살이를 통해서 나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식물과 함께 쑥쑥 자라요!



사계절



- 글·그림: 퍼트리샤 헤가티, 브리타 테르트립
- 출판사: 키즈엠
- 한줄 평: 숲의 변화를 통해서 사계절을 알아봐요!

씨앗 세 알 심었더니



- 글·그림: 고선아, 윤봉선
- 출판사: 보림
- 한줄 평: 씨앗이 커다란 무가 되는 과정을 이해해요!

안녕, 가을



- 글·그림: 케나다 박
- 출판사: 국민서관
- 한줄 평: 아이의 발걸음을 따라 계절의 변화를 느껴요!

우리 동네에 들꽃이 피었어요



- 글·그림: 카도 아츄
- 출판사: 푸른숲주니어
- 한줄 평: 들꽃의 생김새와 이름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아기 첫 상황별 그림책

꼬리가 있으면 좋겠어!



- 글·그림: 정재원, 이혜리
- 출판사: 보림
- 한줄 평: 동물의 꼬리를 달면 어떨지 상상해 보아요!

누구의 알일까요?



- 글·그림: 미야 포사다
- 출판사: 키즈엠
- 한줄 평: 알에서 나온 동물의 아기 때 모습을 알아보아요!

뒤죽박죽 카멜레온



- 글·그림: 에릭 칼
- 출판사: 더큰
- 한줄 평: 내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이해해요!

배고픈 거미



- 글·그림: 강경수
- 출판사: 그림책공작소
- 한줄 평: 파리만 잡아먹는 거미의 속마음을 이해해요!

동물들과 친구가 돼요!



부리 부리 무슨 부리



- 글·그림: 이우만, 천지현, 정지윤
- 출판사: 보리
- 한줄 평: 새들의 부리생김새와 울음 소리를 알 수 있어요!

숲으로 간 몬스터



- 글·그림: 스티키 몬스터 랩
- 출판사: 보림
- 한줄 평: 숲속에서 동물 친구들을 찾아보아요!

우리 아기 첫 보들보들 촉감책: 동물



- 글·그림: 스텔라 배곳
- 출판사: 어스본코리아
- 한줄 평: 다양한 동물에 대한 느낌을 표현해요!

토끼일까?



- 글·그림: 크림뽕, 박경연
- 출판사: 키즈엠
- 한줄 평: 토끼의 생김새와 특징을 알아보아요!

영유아 독서진단지¹⁾



문항	우리 아이는 어떤가요?(영아) (자녀의 상황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주세요)	a. 아직	b. 때때로	c. 자주
1	손을 흔들거나 종이를 치면서 책 읽기에 즐겁게 반응하나요?			
2	책을 다른 놀이도구와 다르게 대하나요?			
3	반복되는 운율, 소리, 구절을 읽을 때 따라 하나요?			
4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어 주기를 원하나요?			
점검 결과	a 초기단계(개) b 중간단계(개) c 발전단계(개)			

문항	우리 아이는 다음을 할 수 있나요?(유아) (자녀의 상황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주세요)	a. 아직	b. 때때로	c. 자주
1	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들고 페이지를 한 번에 한 장씩 넘기나요?			
2	책 속 그림을 가리키며 그것의 이름을 말하나요?			
3	낮 동안 있었던 일을 다시 전달할 수 있나요?			
4	주먹으로 크레용을 쥐고 낙서도 하나요?			
점검 결과	a 초기단계(개) b 중간단계(개) c 발전단계(개)			



독서 점검을 마치고 떠오른 느낌(생각)은

이후의 생활에서 변화가 필요한 점은

1) 진단지 출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2014), 책 읽어주세요 가이드북. p. 14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내첫도] 독서상담

Q&A

Q1

독서 육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A. 독서 육아란 책으로 태아와 영유아의 성장발달을 돕는 육아 방법을 말합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의 연구 결과를 보면 책 읽어주는 소리는 아이의 두뇌를 자극해 새로운 세포 형성을 촉진 시킨다고 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인간잠재력 개발연구소 설립자이며 아동 두뇌 발달 분야의 전문가인 글렌 도만(Glenn Doman) 박사는 인간의 사고력 발달을 돕는 것 중 가장 뛰어난 방법은 아이에게 말과 글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영유아기 독서 육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자유롭게 상상하는 것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오감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사물과 세상을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특히 사랑을 담아 읽어주는 책과 신나는 책놀이 경험은 부모나 양육자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높여주고 책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일본의 유아교육 전문가 마쓰이 다다시는 어린 시절의 독서 경험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림책에 얽힌 일들을 회상할 때마다 그것을 읽어주던 어머니의 존재를 확실히 의식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림책의 그림, 언어와 더불어 지금도 나에게 말을 하고 있으며 살아 계신 듯한 생각이 듭니다. 나는 결코 효자의 대열에 끼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림책의 체험을 통해서 어머니와의 끈끈한 유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 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는 임신시기부터 출생 후 영유아들이 책과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도서관 서비스로 임산부와 양육자분들의 독서 육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내 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www.library.kr) 경기도독서포탈 북매직(www.bookmagic.kr)에는 전 생애 독자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과 유용한 독서 활동 자료들이 다양하게 올려져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2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요?

- A.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려면 무엇보다 아이 스스로 책 읽는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책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생겨야 가능한데 책과 관련된 좋은 경험이 많을수록 좋아하게 됩니다. 추천드릴 방법은 부모나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책 읽어주기와 책놀이를 꾸준히 하시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 것이 행복한 경험이고 재미있는 일이라는 것을 아이가 경험하도록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읽어주실 책은 의성어나 의태어가 반복되는 옛날이야기 그림책이나 삽화나 이야기가 간결하고 아이의 호기심을 끄는 그림책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어려워할 만한 낱말은 쉽게 설명해주시면서 꾸준히 아이에게 읽어주며 놀다 보면 아이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체험하는 즐거움 속에서 책이 주는 재미를 조금씩 깨우치게 됩니다. 또한 책을 읽어주기 전에는 몸 놀이나 책놀이를 아이의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영유아들은 리듬감과 반복 구절이 있는 동요, 손가락 놀이를 좋아합니다. 반복되는 구절을 읽어 줄 때 아이를 무릎에 앉혀 놓고 다리를 올렸다 내리거나, 몸을 살짝 흔들어 주거나, 손뼉을 치면서 소리와 동작을 일치시키면 무척 즐거워합니다. 이러한 독서 경험과 부모님의 격려와 지원이 지속될 때 자연스럽게 책을 친구삼아 책과 함께 자라는 아이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영유아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끌어내는 책들은 [우리 아기 첫 상형별 그림책 - 따라 읽을 수 있어요] 코너에 추천되어 있으니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Q3

영유아를 위한 독서 활동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 A. 영유아와의 독서 활동은 아이들이 관심을 느낄 만한 책 읽어주기와 재미있는 책놀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엇보다도 재미있고 부담 없는 책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책에 대한 즐거운 경험이 많아질수록 책과 친숙해집니다. 영유아기는 특히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 형성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책을 보여줄 때는 아이를 품에 안고 부드럽고 나직한 음성으로 읽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굳이 그림책의 순서에 따라 책장을 넘길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가 흥미를 가지고 들여다보는 그림 위주로 말을 주고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것은 영유아기의 독서 활동이 조기교육의 과욕으로 이어질 경우 오히려 아이가 영영 책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끌어내는 책들은 [우리 아기 첫 상형별 그림책 - 잘 들을 수 있어요] 코너에 추천되어 있으니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Q4

영유아에게 어떤 책을 읽어주어야 할까요?

- A. 0~3세 영유아기는 감각기관이 빠르게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시청각 발달을 돕는 책, 촉각을 자극하는 형겅 책, 후각을 자극하는 보드 북 형태의 책을 보여주는 것을 권합니다. 영유아를 위한 책은 독서보다는 오감을 충족시켜주며 아이가 흥미를 갖고 만지고 놀면서 보는 장난감 용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돌이 지난 후에는 다양한 탐색 활동과 또래 놀이가 활발해지고 호기심과 상상력, 언어사용 능력이 한층 향상되어 언어 놀이를 즐기고 주변의 글자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다양한 개념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 익숙한 사물이나 동물이 의인화된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아하지만, 아직 주의집중력이 떨어지므로 한자리에서 다 읽을 수 있는 짧은 이야기를 담은 우화나 전래동화 그림책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자와 영유아를 위한 추천 그림책 목록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내 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www.library.kr)와 경기도독서포탈 북매직(www.bookmagic.kr)에 올려져 있으니 활용해보시기를 권합니다.

Q5

24개월에서 48개월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읽어주면 좋은지 상황에 맞는 책이 궁금해요?

- A. 일반적으로 영유아들은 글이나 그림의 형식에 관계없이 아주 단순하고 그림이 분명한 책을 좋아합니다. 또한 그림이 튀어나오는 책이나 촉감이 느껴지거나 오감을 자극하는 책에도 쉽게 흥미를 느낍니다. 따라서 영유아들에게는 그림만 보고도 한 눈에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림과 비교적 단순한 이야기 구조, 되풀이되는 말, 의성어, 의태어와 같은 반복된 어휘와 시적인 리듬감이 느껴지는 문장이 있는 그림책이 좋습니다. 세 돌 무렵의 영유아들은 다양한 탐색 활동과 또래 놀이가 활발해지고 호기심과 상상력, 언어사용 능력이 한층 향상되어 언어 놀이를 즐기고 주변의 글자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다양한 개념을 습득하게 됩니다. 비슷한 구조로 운율이나 구절이 반복되거나 분명한 후렴구가 있거나, 재미있는 의성어, 의태어가 있는 그림책을 연속적으로 읽어줄 때 자녀는 책에서 들은 단어를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영유아들이 좋아하는 소재나 주제는 아이다운 마음을 생동감 있고 단순하게 그려내어 감동과 재미를 선사해주는 그림책입니다. 먹거리나 배변 등 기본적인 욕구를 다룬 소재나 삶의 밝고 어두운 면을

진솔하게 그려내는 옛이야기, 미숙한 인물들과 황당한 사건들이 재미있게 전개되는 우화, 생활 그림책들은 아이들이 특히 선호하는 책입니다. 구두, 코트, 신발, 우산 같은 익숙한 물건이 페이지마다 나오는 단순한 지식 그림책도 좋아합니다. 공룡, 화산 폭발, 열과 빛, 뱀, 고대 이집트, 날씨 같은 것을 다루는 그림책은 어린 시절의 관심이 평생 지속되기도 하므로 그런 소재에 관심을 보이는 아이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24개월에서 48개월 연령의 영유아를 위한 상황별 추천 그림책 목록은 경기도독서포탈 북매직 내حت도 추천도서(www.bookmagic.kr)에 올려져 있으니 활용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짐 트렐리즈의 [읽어주기 좋은 책] 목록과 서천석 선생님의 [문제상황별 그림책] 목록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Q6

유명기관의 추천 도서나 문학상을 받은 도서만 읽어주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걸까요?

- A. 좋은 책은 아이의 두뇌 발달과 인성발달은 물론 사회성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어떤 책이 정말 좋은 책인지 단정 지어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나 유명기관의 추천 도서는 평균 수준 이상의 책을 권장하는 수준이지 결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흥미나 수준은 고려하지 않은 채 '추천 도서'만 고집하다 보면 오히려 아이가 싫어하는 책을 억지로 읽게 하는 일이 생기면서 책과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한 권의 책이라도 즐거워하며 읽고 꾸준히 읽도록 하려면 아이가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책을 읽게 해주어야 합니다. 우선 도서관이나 서점 나들이를 통해 다양한 도서들을 접해보면서 부모님과 아이가 직접 책을 골라보는 경험을 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또한 바쁜 부모님들을 위해 도서관이나 출판사 등에서 아이의 연령과 성장 발달 단계에 알맞은 적정 도서를 골라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하므로 이러한 것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 다만 민간 기관들의 경우 프로그램의 구성이나 가격, 계약내용 등이 다르니 사전 상담을 통해 꼼꼼히 비교해보고 선택하시기를 권합니다. 영유아를 위한 상황별 추천 그림책 목록은 경기도 독서포탈 북매직 내حت도 추천도서(www.bookmagic.kr)에 올려져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경기도 독서포탈 북매직 안내

Q7

전집도서 구입을 권유받고 있는데 전집을 구입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 A. 전집류는 개별적인 아이들의 특성보다는 교육적인 목적이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일괄 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아이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책들이 끼어 있을 수 있으므로 아이의 독서 취향이나 수준을 고려하여 가능한 낱권으로 구입하시기를 권합니다.

Q8

글자 없는 그림책은 어떻게 읽어주어야 할까요?

- A. 글자 없는 그림책은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적인 생각을 자극하는 그림책으로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다양하게 즐기는 책입니다. 어른들은 부담스러워하는 반면 아이들은 글자가 없는 대신 그림을 보면서 자유롭게 상상하며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을 놀이로 생각하고 즐거워합니다. 글자가 전혀 없는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만들어 들려주거나 아이들이 흥미를 보이는 장면은 자유롭게 상상한 내용을 이야기해보도록 격려하면서 읽어주시면 색다른 경험으로 받아들이며 재미있게 참여할 것입니다. 영유아와 함께 보실만한 글자 없는 그림책들은 <그림자 놀이> (이수지 그림, 비룡소), <빨간 풍선의 모험>(엘라 마리 그림, 시공주니어), <모양들의 여행> (크라우디아 루에다 저, 담푸스), <케이크 도둑: 그림 속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찾아라> (데칭 킹 지음, 거인) 등이 있습니다. 경기도독서포탈 북매직(www.bookmagic.kr)에는 영유아를 위한 그림책 선정 방법과 읽어주기 방법 및 추천 도서목록 등 유용한 독서 활동 자료들이 다양하게 올려져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9

영유아에게 책을 읽어줄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 A. 영유아들에게 책을 읽어 주실 때는 무엇보다도 여유를 가지고 아이가 즐겁게 책에 빠져들도록 해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읽어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읽어주는 것은 부모님도 힘들지만, 아이에게도 독서를 '과제'로 느끼게 만들어서 결국 책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그림책을 읽어주실 때는 책 속의 글뿐만 아니라 그림까지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을 모르는 영유아들에게 그림은 천 가지 단어를 말해 주고,

이야기를 이해하도록 돕는 효과가 있으므로 그림을 뛰어넘으면 안 됩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그림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할 말도 많아지므로 그림이 자연스럽게 책에 대한 대화를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아이가 책 속의 특정 인물이나 장면에 흥미를 보이며 집중할 경우에는 가능한 충분히 탐색하며 즐길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이가 반복해서 읽기 원하는 책이나 장면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며 충분히 반복해서 읽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좋아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처음 들었을 때와는 다른 감동으로 이야기를 새롭게 느끼고 이해하면서 자기 나름의 이해와 인식을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음성 발달 분야의 권위자 페트리샤 K. 콜 교수(미국 워싱턴 대학교)는 생후 10개월 무렵부터 아이는 자주 들어온 모국어를 알아차며 모국어를 기반으로 뇌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아이에게 운율감 있고 재미있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 그림책을 반복해서 읽어주게 되면 단어가 같은 식으로 발음되고, 같은 구두점이 나오고, 같은 글자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되면서 언어발달이 촉진됩니다. 책을 읽어 줄 때 아이가 하는 질문은 바로바로 간단히 답변하며 반응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Q10

TV 영상이나 스마트 폰 등의 미디어로 책을 보여주어도 괜찮을까요?

A. 발달 전문가나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오감 자극을 통한 두뇌발달과 부모와의 애착 형성이 중요한 만 두 살 이전의 영유아들이 TV나 스마트 폰 등의 디지털미디어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첨단 미디어 기기들이 일상생활 깊숙이 침투하면서 한 돌 이전의 영아들까지도 TV나 스마트 폰 영상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몇 년 전 TV, 스마트 폰, 혹은 태블릿 PC 등의 디지털미디어에 과다 노출된 유아를 대상으로 두뇌 검사와 스트레스 검사를 해보니 엄마 품에서 보다 미디어에 노출되었을 때가 더 안정적인 상태였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애착 형성이 엄마보다 디지털 기기에 더 치우쳐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영유아 시기에 형성되는 부모와의 애착 관계는 일생동안 영향이 미치는 매우 중요한 발달과제입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을 경우라면 상업용으로 제작된 영상보다는 엄마가 읽어주는 것을 스마트 폰 등으로 녹음한 책이나 동영상으로 보여주시기를 권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저음은 듣는 사람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고 하니 다소 미숙하더라도 아빠가 읽어주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경기도 독서포탈 북매직 안내

Q11

책을 읽어줄 때 동화구연 식으로만 읽어주어야 할까요?

- A. 아이를 위해 부모나 양육자가 책을 읽어주는 소리는 아이를 상상의 세계로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사랑을 담아 자연스럽게 책을 읽어주는 것만큼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적절한 주임새를 넣어서 생동감 있는 입말로 읽어주면 아이들은 그 어떤 놀이보다 더 즐거워합니다. 일본의 유아교육 전문가 마쓰이 다다시는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을 ‘어른과 아이가 정신적으로 손을 잡고 떠나는 신비한 여행’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책을 읽어줄 때는 아이가 좋아하는 등장인물이 나오는 이야기나 같은 작가가 쓴 책들을 이어서 읽어주거나 글자가 없는 책도 이야기를 꾸며 읽어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읽어줄 수 있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방법은 크게 동화구연식과 낭독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화구연식 읽어주기에서는 책 내용을 입 말투로 바꾸고 동화구연용 교구를 별도로 제작하여 사용하지만, 낭독식 읽어주는 원문을 있는 그대로 읽어주며 표정과 목소리만을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읽어주는 것이 다릅니다. 어느 방법으로 읽어주어도 관계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영유아들에게 읽어줄 때는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황에 맞게 음성과 얼굴 표정을 변화시키고 이야기하듯이 읽어줄 때 좀 더 잘 집중하게 됩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자신에게 편안한 방식으로 읽어주시되 목소리가 상황에 적절한 크기와 음조인지 발음이 정확한지를 점검하고, 읽어주는 속도나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장면의 분위기를 실감 나게 표현하면서 읽어주시면 어떤 방법이든 관계없습니다.

Q12

책을 읽어주겠다고 하면 똑같은 책을 가지고 오는데 새로운 책도 읽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마음에 든 책을 반복해서 읽는 것이 영유아기의 아이들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같은 책을 아이가 반복해서 읽는다는 것은 책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책이 생기고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스스로 읽는다는 것은 독서 흥미가 높기 때문이며, 독서에 몰입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이가 어떤 책을 반복해서 읽는지 세심히 살펴보면 아이의 독서 특성과 수준을 파악하는 기회가 됩니다. 대부분은 책을 읽어주는 사람과 보낸 시간이 즐거운 경험이어서 그것을 반복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 아이들은 같은 책을 읽어도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그림에, 또 어떤 날은 이야기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책을 여러 번 읽으며 내용을 기억하거나 새로운 어휘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읽었던 책을 또 읽어달라고 해도 즐겁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와 함께 아이에게 새로운 책을 권해주시려면 우선 반복해서 읽는 이야기와 유사한 이야기 구조나 비슷한 인물이 등장하거나 같은 그림 작가가 그린 책 등 익숙한 느낌의 책으로 시도해보시면 아이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책을 읽기 전에 읽어주고 싶으신 책과 관련된 곳을 방문하거나 책 이야기의 일부분을 재미있게 들려주셔서 친밀감을 느끼게 한 후 읽어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13

형제, 자매가 동시에 책을 읽어달라며 떼를 쓸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형제, 자매는 아이들이 최초로 경험하게 되는 경쟁 관계입니다. 아이들이 보이는 이런 행동은 책에 대한 욕구보다는 부모님께 무엇보다도 자신이 더 사랑받고 중요한 존재임을 확인받고 싶은 욕구 때문일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아이가 훌쩍하게 느낄 정도로 아이에 대한 사랑과 인정을 표현해준 후에 아이의 양보나 타협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막무가내로 떼를 쓸 때는 부모님도 지치기 쉬우니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일단은 서로가 진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도 아이도 여유가 생겼을 때 아이가 자신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느낄만한 인물이 등장하는 이야기나 부모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 만한 책들을 아이의 반응을 살피면서 읽어주시고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주신 후 부모님께 아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이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들려주고 인정해 주시면 아이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진심 어린 노력이 지속되면서 형제간의 경쟁도 차츰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간의 관계개선에 도움이 될 책들은 [우리 아기 첫 상황별 그림책 - 형제의 마음을 이해해요!] 코너에 추천되어 있으니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Q14

아이가 또래 아이들보다 말이 늦는 것 같아 걱정되는데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 A. 교사와 육아 전문가들은 말을 배우고 표현하는 능력은 인지발달 상태와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의 언어사용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가 알아듣든 말든 계속 말을 시키면서 책 읽어주기를 꾸준히 하는 것은 아이의 언어발달을 돕는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첫 돌 시기엔 엄마, 맘마 정도의 말을 하던 아이가 두 돌이

경기도 독서포탈 북매직 안내

되면 두 단어 정도를 연결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되고, 만 3세 무렵엔 어휘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어휘의 양뿐 아니라 내용 이해까지도 가능해지고 언어표현에서도 여러 낱말을 연결한 문장의 사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예전의 나이 든 어른들은 4~6개월 정도의 갓난아기가 웅얼이하는 것을 보면 아이가 말하는 연습을 하느라 애쓰는 것이니 웅얼이를 받아주라고 말씀하시며 눈을 맞추고 격려하셨습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 제대로 된 첫 말을 하게 되기까지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는 부모 대로 눈에 드러나는 혹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유아의 언어능력을 높이기 위해 책을 고를 때는 이야기책이나 그림책의 내용이 정확하고 바른 언어로 쓰여지면서 리듬감이 살아있는 이야기책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반복적인 어휘(의성어/의태어)가 많이 사용되어서 아이들이 리듬감 있는 책 읽기를 통해 말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유아 동시집'이나 '마주 이야기' 같은 책이 좋습니다. 또한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단어를 접하게 되는 일이 많으므로 유아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은 그 단어나 문장으로 짧은 이야기를 지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들려줌으로써 그 단어가 주는 느낌을 충분히 전달해주는 것도 유아들의 언어능력을 발달 시켜 주는 데 나름대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의 언어발달에 도움이 될 책들은 [우리 아기 첫 상황별 그림책 - 나도 말할 수 있어요], [따라 읽을 수 있어요] 코너에 추천되어 있으니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Q15

책을 읽다 바로 관심이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A. 대부분의 영유아들은 왕성한 호기심과 집중력의 부족으로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합니다. 영유아기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10분을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책을 읽어주는 동안 아이가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간이 어디인지 알아두고 책장과 책상, 의자를 갖다 놓아 자연스럽게 앉아 책을 읽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그런 곳이 없다면 새롭게 작은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책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책장을 준비하거나 아이의 활동 공간 이곳저곳에 아이가 볼만한 책을 놓아두어서 자연스럽게 책에 손이 가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책을 읽어주실 때는 아이의 수준에 맞는 책을 고르고, 책에 있는 그림이나 사진, 숫자 등으로 아이의 관심을 유도한 후에 읽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계속 산만하게 딴짓을 한다면 읽어주는 책이 아이에게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으니 좀 더 쉬운 책을 읽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엔 책 읽기를 강요하지 말고 바깥 공간으로 나가서 충분히 놀아준

후에 잠자기 전이나 아이가 심심해하는 시간대에 읽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영유아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끌어내는 책들은 [우리 아기 첫 상황별 그림책 - 따라 읽을 수 있어요!] 코너에 추천되어 있으니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Q16

아이가 책을 읽어준 후에 질문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어떤 식으로 질문하면 좋을까요?

- A. 영유아와 책을 읽을 때는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정서 교류에 집중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이가 책 내용을 잘 기억하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상상력의 확장을 가로막고 책에 대한 흥미를 빼앗아 버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질문보다는 대화 형식으로 책에 대한 아이의 궁금증이나 느낌을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시기를 권합니다. 책을 함께 읽은 뒤 아이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가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은 아이 스스로 주도적인 독자로 성장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질문에 부담을 느끼는 아이에게는 부모님의 느낌과 생각을 이야기해주시거나 책을 읽은 직후가 아니라 다른 때 예를 들면 간식을 먹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난 듯이 '엄마는 그 책이 다시 생각해도 참 재밌어'라고 말하면서 아이도 자신의 느낌을 자연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를 권합니다. 경기도독서포탈 북매직(www.bookmagic.kr)에는 영유아를 위한 그림책 읽어주기 방법과 책 읽은 후의 이야기 나누기 방법 및 추천 도서목록 등 유용한 독서 활동 자료들이 다양하게 올려져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17

영유아와 책을 읽은 후 어떤 놀이를 하면 좋을까요?

- A. 영유아를 위한 책놀이는 인지적인 지식습득보다는 책 읽기를 즐거운 놀이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활동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책을 높이 쌓아보게 하거나 책을 바닥에 깔아 징검다리를 만들어 걸어 다니도록 하는 활동들이 그것입니다. 또한 책 내용과 관계없이 책을 한 장씩 넘기면서 책에서 어머니가 호명하는 대상을 아이가 찾아보는 활동(OO는 어디 있을까?)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놀이를 추천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아들은 자신이 알게 된 것을 실제 생활 속에서 활용해보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이수지 작가의 [그림자 놀이]라는 책을 읽었다면 '이불 뒤집어쓰고 손전등을 비추며 책 읽어보기'놀이를 한다거나 채인선 작가의 [손 큰 할머니 만두 만들기]를 읽어 준 후 만두 대신 '빵 만들기' 같은 아이가

경기도 독서포탈 북매직 안내

좋아하는 음식 만들기로 바뀌어서 하는 활동이나 책 속의 등장인물의 역할을 흉내 내며 부모님과 아이가 자유롭게 따라 하는 활동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선호하는 책놀이 활동으로 추천합니다. 이처럼 책에서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즐겁게 표현하는 활동들을 통해 점점 책 읽기를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독서포탈 북매직(www.bookmagic.kr)에는 영유아를 위한 그림책 읽어주기 방법 및 책놀이 활동 방법 등이 다양하게 올려져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18

아이가 세 살이 되면서 '싫어', '안해' 라면서 떼를 쓰는데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 A. 유아기 아이들의 고집과 떼쓰는 행동을 지도할 때 중요한 것은 상황에 맞춰 '달래거나 무시하기', '칭찬하고 설득하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시기 전에 우선 아이 마음부터 살피는 것입니다. 아이가 왜 떼를 쓰고 고집을 부리는지 원인을 살핀 후에는 무조건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그 후에 들어줘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부모님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아이가 고집을 부리고 떼쓰는 행동을 할 때는 무관심한 태도로 거리를 두시고 바람직한 모습을 보일 때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더 큰 관심을 보이며 칭찬해주고,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때 아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관심과 일관된 지도를 통해 아이는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고집과 떼쓰기 행동 지도에 도움이 될 책들은 [우리 아기 첫 상황별 그림책 - 엄마, 아빠의 사랑을 느껴요!] 코너에 추천되어 있으니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Q19

아이가 집에서는 활발한데 밖에만 나가면 지나치게 얌전해요. 왜 그러는 걸까요?

- A. 타고난 기질이 내향적이거나 예민한 아이들이나 분리 불안이 심한 아이들은 낯선 상황이나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면 긴장하고 불안한 감정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애가 밖에만 나오면 확 달라지네.” 같은 말로 행동을 지적하며 활발하기를 요구하게 되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부담감을 느껴서 더 힘들어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의 마음을 안정시키려면 무엇보다 낯선 상황을 아이가 받아들이고 적응할 때까지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주며 편안해질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런 행동 변화의 정도가 심하거나 초등생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엔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영유아의 긍정적 행동 변화에 도움이 될 책들은 [우리 아기 첫 상황별 그림책 - 나도 말할 수 있어요. 친구 만드는 방법을 알아요] 코너에 추천되어 있으니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Q20

아이가 화를 잘 내고 친구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데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 A. 일반적으로 영유아들의 공격성은 만 2~4세 사이에 나타나게 됩니다. 아이의 공격적인 특성은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평소 부모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부분도 큼니다. 과잉보호를 받는 아이나 반대로 너무 엄격하게 양육되는 아이들의 경우엔 감정 발달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이들은 기질적으로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해 또는 화난 마음의 표시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친구들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우선 아이를 진정시키고 어떤 이유라든 친구를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다음 친구를 왜 공격했는지 등 상황을 물어보며 아이의 감정 상태를 헤아려주고 친구의 기분도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소 그림 놀이, 몸 놀이, 상상 놀이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충분히 발산할 수 있게 해주고,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어 자신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공격행동 행동지도에 도움이 될 책들은 [우리 아기 첫 상황별 그림책 - 상상하는 것을 표현해요, 친구 만드는 방법을 알아요] 코너에 추천되어 있으니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경기도 독서포탈 북매직 안내



+ 독서상담 참고도서와 사이트

- 도로시 버틀러(2003), 『쿠솔라와 그림책이야기』, 보림
- 마쓰이 다다시, 이상금 옮김(2012), 『어린이와 그림책』, 샘터
- 매리언 울프, 이희수 옮김(2009), 『책 읽는 뇌』, 살림
- 박형주, 김지연(2019), 『공부머리 만드는 그림책 놀이 일 년 열두 달』, 다우출판사
- 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13),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교사용 지침서』
- 서천석(2014), 『우리아이 관찰아요』, 예담프렌드
- 서천석(2015), 『그림책으로 읽는 아이들 마음』, 창비
- 송길연, 유봉현(2005), 『발달의 이론』, 시그마프레스
- 스티븐 크라센(2013), 『크라센의 읽기 혁명』, 르네상스
- 앨리스 데이비드, 이주혜 옮김(2019), 『책을 사랑하는 아이로 키우기』, 좋은꿈
- 전남련 외(2012), 『영아발달』, 양서원
- EBS MEDIA(기획), (2015), 『EBS 다큐프라임 슬로리딩, 생각을 키우는 힘』, 경향미디어
- 존 카우치, 제이슨 타운, 김영선 옮김(2019), 『공부의 미래』, 어크로스
- 짐 트렐리즈(2018), 『하루 15분 책읽어주기의 힘』, 북라인
- 필립 브라쉬르(2009), 『책놀이 보물창고 1001』, 한올림어린이(한올림)
- 현은자, 김세희(2005), 『그림책의 이해』, 2, 사계절
- 경기도사이버도서관: www.Library.kr
- 경기도독서포탈 북매직: www.BookMgaic.kr
- 한국독서지도연구회: www.readingclinic.or.kr



+ 연구자

- 한국독서지도연구회협동조합
 - 책임연구원: 김현애(가톨릭대학교 독서교육전공 겸임교수, 한국독서지도연구회협동조합 대표)
 - 연구원: 이은주(한국독서지도연구회협동조합 독서교육전문가, 아동문학평론가)
임은정(한국독서지도연구회협동조합 독서교육전문가)
조현숙(한국독서지도연구회협동조합 독서교육전문가)
한영진(아동심리전문가)

| 독서에 대한 다양한 자료 경기도 독서포탈 북매직 www.BookMagic.kr |

내 생애 첫 도서관 독서 도움 자료

책과 함께 누리는 내 생애 첫 도서관

부모, 양육자편

발행일 2020년 11월 30일
 저자 한국독서지도연구회협동조합
 기획·편집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발행처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흥로23번길 68
 연락처 031)252-5237
 누리집 www.Library.kr
 www.BookMagic.kr

비매품

- 본 자료의 저작권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과 한국독서지도연구회 협동조합이 함께 갖고 있으며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 본 자료에 사용된 각 도서의 이미지는 해당 출판사와 협외된 사항으로 본 자료 이외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

Gyeonggi-do Cyber Library

비매품/무료



9 788993 395792
ISBN 978-89-93395-79-2
ISBN 978-89-93395-82-2 (전2권)

도서관을 위한 도서관 / 지식이 소통하는 열린도서관
www.Library.kr